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미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미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라살레주의와 고타강령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희 경

라살레주의와 고타강령

The Lassalleism and The Gotha Programme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희 경

라살레주의와 고타강령

지도교수 전 지 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희 경

김희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최영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지용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ACT i	
I. 머리말 1	
Ⅱ. 1860년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6	
1. 라살레와 ADAV(전독일 노동자 총연맹) ······ 6	
2. 베벨과 SDAP(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 ····· 21	
Ⅲ. 1870년대 노동자정당의 통합 과정과 노선 32	
1. 노동자정당의 통합 과정 32	
2. 라살레주의와 고타강령의 관계 40	
3. 고타강령 이후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선 62	
IV. 맺음말 71	
참 고 문 헌 78	,

ABSTRACT

The Lassalleism and The Gotha Programme

Kim, Hee-kyung

Advisor: Prof. Jeon, Ji-yong Ph. D.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Ferndinand Lassalle, who led the social democracy reformism and accepted the ethnic nation. His opinion was different from the internationalis of the social revolutionists Marx and Engels. This paper deals with Lassalle as a reformer. And it is on the Gotha Programme. It was inevitably the mixture the Lassalleism and the Marxism.

After Failure of revolution in 1848, all individual labor movement disappeared. After the late 1850 some liberalists led lively labor movement, but liberalists think the laborers are just their political reserve force. So laborers pursuit their own independent political activity. In the early 1860s, Lassalle exclaimed the need of independent labor organization.

On May 23, 1863, laborers themselves founded the General German Workers'

Association (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ADAV) with Lassalle who was its president. This was the first political associations of the Geman working class and forerunners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Lassalle urged two slogans; On was that, ADAV has a universal suffrage and the other was that, the government guaranteed the producers union.

At the end of the 1860s, a Marxist-inspired movement was growing up. The leading figures were August Bebel and Wilhelm Liebknecht. In 1869, they founded the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Sozialdemokratishe Arbeiterpartei: The Eisenachers) at the Eisenach conference. But the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and Bebel were neither a Marxist party and nor a Marxist. The Eisenach Programme included the Lassallesim(a universal suffrage, a Iron Law of Wages, and the government guaranteed the producers union).

The Lassallians and the Eisenachers drew closer together. Bismarck's mounting hostitlity to socialism after the episode of the French Commune underlined the need for unity. In 1875 at the Gotha conference Lassallians and Eisenachers united to form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The party accepted the Marxist analysis of society. But the party also declared that it would use only legal means in the struggle for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and it still clung to the Lassallesim. Marx was strongly critical of the concessions to the Lassallians. After all the Gothaer Programme leaned to the Lassallesim.

The Lassalleism was lack of originality and it has its limit because of the Germany social particularity, but Lassalle was not an endurable theologist, he was an instigator. He tried to be awakened laborers and he vitalized the labor movement in German. So he was against the social revolution, took the

reformism method, and formed the Germany Social Democracy ideology.

The Lassallesim constructed Lassalle's nation theory, producer cooperative association theory and democracy theory. The Lassalle's outlook of nation was criticized for a long time by Marx and Marxist who consider the nation is supposed to be upset. But Lassalle insisted that nation have a moral idea of human common society. Furthermore he required to get a emancipation of labor at nation. Lassalle's exclaimed the abolition of Iron Law of Wages(ehernes Lohngesetz) and induces the normal, direct election. Iron Law of Wages was limited by laborer's average minimum exist expense. Lassalle insisted that laborer establish the producer cooperative association that laborer has the right of possession and control for themselves. Also he insisted this producer cooperative association based on normal and direct election. But Lassalle's democracy theory is not a parliamentarism democracy but autocratic Jacobin democracy. The Lassalleism influenced the Gothaer Programme and the Germany Social Democratic Party.

I. 머 리 말

19세기 중반 독일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빈 회의 (Winener Kongreß, 1814/1815)의 결의에 따라 39개의 연방 국가체제로 구성되었다. 이와는 달리 독일의 경제는 1850년대를 전후해서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독일 사회에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대립계급이 발생하였으며, 노동자들도 각 산업 부분간 그리고 숙련공과 미숙련공 간의차별을 없애고 노동자로서의 하나의 계급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의 노동운동은 민족 통일 문제와 계급 투쟁 문제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결속하여 정치적인 조직을 결성하였던 시기는 1848년 혁명기 때였다. 이 시기에 결성된 조직은 보른(Stephan Born)의 지도하에 결성된 '전독일 노동자형제단(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brüderung: 이하 형제단이라고 칭함)'이다.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는 무산계급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반면에, 그들의 추종자인 보른은 사회개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른은 국가가 후원하는 생산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들의 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의 노동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마르크스는 사회혁명을 주장한 반면 보른은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방향성은 이후 독일 사회민주주의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다.

독일 내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독일의 현실에 맞는 사회개혁을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라살레(Ferdinand Lassalle)이다.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이마르크스를 중심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확대되던 1860년대에, 그는 독일에 남아서 1850년대의 반동시대(Reaktionsare)에 살아남은 노동운동에 사회주의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독일 노동자들에게 독자적인 노동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 그리고 그는 국가와의 협력과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목표에 도달 하려고 하였다. 이에 그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당을 결성한 이후, 보통선거권을 토대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창설하여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신장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라살레의 사회주의 이론을 이른바 라살레주의라고 한다.

라살레는 이론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실천 작업도 병행하였다. 그는 노동자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노동조합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정당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1863년에 최초의 노동자정당인 '전독일 노동자 총연맹(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이하 'ADAV'라 칭함)'이 창설되었다. 같은 해 ADAV와는 별도로 '독일노동자 조직연합(Vereinstag Deutscher Arbeitervereine, 이하 'VDAV'라 칭함)'이 결성되었는데, 이 조직을 토대로 1869년에는 베벨(August Bebel)이 중심이 되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 SDAP, 이하 '아이제나흐파'라 칭함)'이 결성되었다. 두 정당은 크게 독일 통일문제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분리되었을 뿐 노동운동의 실제 핵심에 있어서는 서로 상충되지 않았다.2' 그래서 1875년 고타 통합 대회를 통해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SAPD)'이라는 통합정당으로 발전하였다.

본고는 독일에서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계급 투쟁뿐만 아니라, 민족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점과 독일에서 노동운동이 시작한 1848년의 혁명기 때와 1860년대의 노동운동에서 마르크스·엥겔스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못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즉 독일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화시켜서 노동운동에 사회주

¹⁾ F. Lassalle, Aus seinen Reden und Schriften, mit einer Einleitung von Ernst Winkler (Wien: Europa Verlag, 1964), p. 101.

²⁾ H. Grebing,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0), p. 84.

의라는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아닌 보른, 라살레, 베벨 등이었다.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와는 달리 민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 모두는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이었지만 실제로 노동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마르크스처럼 국가를 거부하거나 사회혁명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마르크스의 이념보다는 독일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콘쩨와 그로오는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민족운동의 일부분이었다고 보았다.3) 이 견해에 따르면 당시의 사민당은 소수의 운 동에 불과하였고, 1874년 빌헬름 2세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리켜 '조국없는 놈들' 이라고 불렀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제국통일 이후 사민당은 정치적으로 고립화 되었으며, 정부의 탄압 하에 응급수단으로 '민족적 성격'을 버리고 '국제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민당 이후의 발전과정을 포함하여 이 시기를 '사민당(내지는 노동운동)의 민족화 과정 내지는 부정적 통합과정' 혹은 '이론과 실 천의 분리'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사민당의 혁명적 이념은 단지 수사적이고 적대적 환경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불과하며, 고립화된 사 민당은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틀을 궁극적으로 수용해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 운동' 혹은 '사민당'과 관련하여 마이어는 '독립적 인 노동자정당 형성과정'으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로의 분리'4)라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마이어에 따르면 이념적, 조직적 측면에서의 이 분리의 과정은 독일의 경우 18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진행되었다. 1863년 ADAV와 1869년 아이제나흐파의 결성 그리고 1875년 ADAV와 아이제나흐파가 독 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통합 한 것은 독일 노동운동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³⁾ W. Cone & D. Groh, *Die Arbeiterbewegung in der nationalen Bewegung*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66), p. 12

⁴⁾ G. Mayer, "Die Trennung der proletarischen von der bürgerlischen Demokratie in Deutschland, 1863~1870," in : H. U. Wehler(Hrsg.), *Radikalismus, Sozialismus und Deutschland* (Frankfurt :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69). p. 108.

파5)'와 결별하여 독자적으로 정치조직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6)

19세기 중반의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통일국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화의 진전으로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 노동운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독일의 상황에 따라 독일의 노동운동은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독일의 노동운동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이 국외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닌 국내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역할이 컸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혁명이 아닌 보른이나 라살레가 주장한 사회개혁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노동운동의 정치정당화 과정을 통해 독일의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발전하는 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시기를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 출현한 18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되기전인 1870년대로 설정한 이유는 산업화가 먼저 시작된 유럽 국가들보다도 일찍이노동자 정당이 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라살레와 그의 사회주의 이론인 라살레주의가 마르크스주의보다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양정당이 통합되어 채택한 고타강령(Gothaer Programm)은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나고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여 정당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고타강령을 중심으로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에 어떤 사상이 주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1860년대 독일의 노동자정당, 즉 ADAV와 아이제나흐파의 형성 과

^{5) &#}x27;자유주의적 민주주의파'라는 용어는 대신에 논자들에 따라서 '좌파 자유주의'(G. Fesser),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소시민적 민주주의'(D. Fricke), '시민민주주의자', '시민민주주의적 급진주의자' 등으로 사용한다. 고재백,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 당'(SDAP)의 결성과 아우구스트 베벨(1863~1870)" (문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3), p. 5, 주 23.

⁶⁾ *ibid.*, pp. 5-6.

정을 통해 당시 독일의 노동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두 정당의 설립자 혹은 많은 역할을 한 라살레와 베벨의 사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는 당의 이념과 정 강정책 및 활동 전반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1870년대 변화된 독일 상황, 예를 들면 1871년에 독일은 제2제국을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은 어떻게 대처해 나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1875년 고타대회를 통해 양정당은 통합되는데, 이때 채택된 고타 강령을 통하여 당시 노동자정당의 활동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타강령은 아이제나 강령이나 에어푸르트 강령과의 유사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 에 독일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고타강 령은 마르크스주의와 라살레주의의 통합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라살레주의 에 입각한 절충주의이다. 그래서 고타 강령에 나타난 라살레주의를 연구하여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라살레주의는 먼저 라살레의 이론 중 가 장 독창적이며, 그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국가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국가관에 기반을 두고 '임금철칙(eherne Lohngesetz)'의 철폐와 삼 급 선거제도(Dreiklassenwahlrecht)?)의 철폐을 통해 라살레가 제시한 생산자 협동 조합(Produktivassoziationen)과 보통ㆍ평등ㆍ직접 선거권의 시행을 연구하고자 하 다. 특히 보통선거권(Allgemeine Wahlrecht)에 기반을 둔 의회주의적 개혁주의 노 선을 지향하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타강령 이후의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노선을 살펴봄으로써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연속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⁷⁾ 삼급 선거제도는 주민을 그 납세 실적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그 각각의 납세 계급에게는 같은 수의 선거인을 배당시켜 이들이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Ⅱ. 1860년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19세기 중반 독일의 노동운동은 조직상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ADAV'과 'VDAV'이다. 이 두 조직은 자유주의자와의 관계 및 노동자계급의 정치화 문제에 대한 입장과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자유주의자들과의 단호한 분리를 선언하고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후자는 자유주의자들과의 협력을 중요시 여기며, 또한 노동자들의 비정치화를 주장하였다.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전자는 '국가부조론'을 후자는 '자조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VDAV는 이후 좌파화를 걸치면서 독일의 제2의 노동자 정당인 '아이제나흐파'의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독일의 최초의 노동자 정당인 ADAV와 제2의 노동자 정당인 아이제나흐파의 정당 형성 과정과 정당 설립자인 라살레와 베벨의 사상을통해서 1860년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라살레와 ADAV(전독일 노동자 총연맹)

1848년 혁명 이전에도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1) 첫째, 지역적인 후원보험조합 (Unterstützungskasse)과 후원클럽(Unterstützungsvereine)이다. 둘째, 일반적인 수

¹⁾ 혁명 이전의 노동조직에 대한 설명은 J. Kocka, "Problems of Working-Class Formation in Germany: The Early Years, 1800~1875," in I. Katznelson & A. R. Zolberg(ed), Working-Class Formation: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330-332 참조.

공업자 클럽들과 노동자 교양클럽들(Arbeiterbidungsvereinen)이다. 이 조직들은 자유주의적이고 시민적인 독서클럽들의 영향을 받았다. 보른과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와 베벨 등이 이 조직 출신이다. 셋째, 국외클럽들(Auslandsvereine)이다. 이러한 클럽들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적 혹은 공산주의적인 목표들을 추구하였다. 1836년 조직된 의인 동맹(Bund der Gerechten)과 1846/47년에 만들어진 공산주의자 동맹(Bund der Kommunisten)이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두 조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외클럽들은 독일 내의 다른 수공업자 및 노동자클럽들에 영향을 끼쳤다.2) 그 외에 바이틀링(Wilhelm Weitling)3)의 수공업자 사회주의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조직을 결성하였던 시기는 1848년 혁명기였다. 이시기 노동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인쇄견습공인 보른이었다. 그는 베를린 지방 노동연합회의 지도자였는데, 1848년 혁명이 일어나자, 8월 23일 베를린에서 '전독일 노동자대회(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terkongreß)'를 소집하였다. 이를 계기로 독일 최초의 정치적 노동기구인 '형제단'이 설립되었다.4)

보른에게서 노동운동의 최종 목표는 국가에 있어서의 "지배 그 자체", 즉 "노동 자계급의 지배"라고 주장하였다.5) 즉 보른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은 노동자

²⁾ 공산주의자 동맹의 소규모 지부가 1847년 말 이래 쾰른(Köln)에 세워졌다.

³⁾ 바이틀링의 목표는 필연적인 평등공산주의이다. 화폐의 폐지, 재산의 공동소유, 모두의 동일한 생활상태, 국가 경계선의 폐지, 전인류의 형제화 내지는 가족화 등이었다. 그는 즉각적인 전복과 무력봉기를 거듭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해체중인 수공업적 신분질서에 묶여 있었다. 그는 수공업자와 소상인 계층, "도시와 농촌의 단순하고 조화된 생활"을 보호하는 것에는 역점을 두었지만, 산업화나 무산계급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의 영향은 1843년 이후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Grebing, op. cit., pp. 26-28.

⁴⁾ *ibid.*, pp. 43-44.

^{5) 1848}년 7월 『민중』. 보른은 이 논설에서 노동자와 천민(Pöbel)을 구별하여 노동운 동의 혁명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보른의 정의에 따르면, 천민이란 혁명

의 여러 권리가 보장되는 부르주아 정치 체제 속으로의 편입이 아니라, 노동자가지배하는 그리하여 모든 계급지배가 종식되는 사회였다. 보른은 기존의 정부를 인정하고6) 그 토대에서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 국가, 단결권, 협동조합의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7) 또한 보른은 대규모의 통일적인 경제영역을 통해 민족 국가를 건설하면,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처지가 개선되리라고 보았다. 이에 형제단은 대독일주의를 지지하였고, 정부 형태에 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회(Nationalversammlung)에서 모든 개별 국가들의 대표들을 결합하는 연방적 공화국을 지지하였다.8)

이와 같은 정치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수공업자와 숙련 공장노동자들이었다. 이들 '수공업계층 소수 숙련공(Conze)'들은 마르크스적 의미의 무산계급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미숙련 노동자, 막일꾼, 일일 고용인 등의 '프롤레타리아'와는 분명히 구별시켰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적대적 계급의식이나 절실한 혁명적 투쟁의식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1848년에 새로운 사회적 자아인식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민 속의 시민(Bürger unter Bürger)'으로 살고자 하였던 직인들, 대장(Meister)들, 공장노동자들도 이제는 스스로를 '노동자'라 불렀고, 자

기의 혼란을 이용하여 재산의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일단의 무정부주의자들 (Anarchisten)이었고,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대해 원칙투쟁(Prinzipienkampf)을 전개하는 정신적 반대세력이었다. 따라서 그는 노동운동의 목표도 단순히 빈부대립의 해소에 있은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지배를 통하여 새로운 재산소유형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창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병직, "슈테판 보른과 노동자 형제단", 이민호 등, 『노동계급의 형성』(서울: 느티나무, 1995), p. 159, 주 79.

⁶⁾ Hans-Ulrich Wehler, ed., Moderne deutsche Sozialgeschichte (Köln, 1973), p.55.

⁷⁾ Karl Josef Rivinius, ed., *Die soziale Bewegung im Deutschland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8), p. 41.

⁸⁾ 한운석, "1848/49년 혁명기 독일 노동자 형제단의 민족문제에 대한 태도," 『역사학보』, 154 (1997), pp. 260-266.

신들을 '노동자계급'이나 '노동자계층'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독일 노동자들은 주어진 현실적 상황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연대행동으로 관철하여,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사회혁명과 사회개혁, 무산자적 계급의식과 시민적 신분의식의 동시공존을 노동자 의식의 이중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 후에도 독일의 사회민주적 노동운동 내에서 지속되었다.9) 이러한 1848년 혁명기의 노동운동은 1850년대에 독일 각 연방 정부가 반동체제를 강화시킴으로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못하다가,10) 이후 이 조직의 전통은 1860년대 출현한 노동운동에 이어진다.11)

1850년대의 독일경제의 급속한 발전¹²⁾은 프롤레타리아의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고, 노동자와 장인이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859년에 시작된 새시대¹³⁾는 정치영역에서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결국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광범위한 노동자층이 형성되고, 거기에 국가의 탄압이 완화되어 정치적 노동운동은 재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857년 불황으로 독일은 자유기업이 모든 가치를 지배하고, 또한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자는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또한 확대해 가려는

⁹⁾ Grebing, *op. cit.*, pp. 45-46 ; 오영옥, "독일 초기 노동운동과 Ferdinand Lassalle" (문학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1978), pp. 27-28.

¹⁰⁾ Conze & Groh, op. cit., p. 32.

¹¹⁾ *ibid.*, p. 40.; Dick Geary(ed), *Labour and Socialist Movements in Europe before 1914* (NewYork: Berg Publishers, 1992), pp. 106-107.

^{12) 1850}년과 1869년 사이에 독일의 석탄생산은 510만톤에서 2,670만톤으로, 철생산은 20만톤에서 140만톤으로, 증기동력은 26만마력에서 248만마력으로, 철도는 3,369마일에서 10,834마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은행과 상업의 증가, 기업구조의 변화, 급격한 기술발전이 있었다. James J. Sheehan, *German Liber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 Lond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78), p. 79.

¹³⁾ 새시대(Neue Ära)는 빌헬름 I 세의 섭정취임과 자유주의적인 내각의 출범으로 인해 정치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1859년-1862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 교육협회운동과 협동 조합운동이었다.14)

1860년대에 교육클럽이나 협동조합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계몽적 노동운동단체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협동조합운동은 해르만 슐째-델리취(Hermann Schulze -Delitzsch)에 의해 지도되었다. 자유주의자이며 조합주의자인 그는 경제에 관해서국가의 어떠한 개입도 거부하였기 때문에¹⁵⁾, 그에게 있어 조합만이 대기업으로부터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조기구였다. 슐째-델리취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특히 그의 신용조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의 신용조합은 이제까지 신용대여에서완전히 제외되었던 수공업자들과 상인들에게 외국자본을 빌려주어 사업을 할 수있게 해주었다. 반면 슐째-델리취는 공장 노동자의 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기울이지 않았다. 슐째는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소중산층들과 똑같은 '자조대책'을원칙적으로 추천하였다. 즉 근면, 저축, 연대 의식을 통해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였다.16)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또 다른 모습이 교육협회이다. 국민협회(Nationalverein)¹⁷⁾의 보호와 장려 하에 발전한 노동자 교육협회의 표어는 '자조'였으며, 따라서 자조를 위한 지적인 '성인교육'이 그들 프로그램의 전부였다. 즉 교육협회를 지도한 자

¹⁴⁾ 한운석, "1860년대 독일 사회민주주의," 『사총』, 30 (1986), pp. 472-473.

¹⁵⁾ Rivinius, ed., *op. cit.*, p. 38.

¹⁶⁾ Grebing, *op. cit.*, pp. 60-61.

¹⁷⁾ 일련의 중부독일 민주주의자들은 슐쩨-델리취 영도하에 1859년 7월 17일 아이제나 흐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또 Bennigsen을 선두로 한 북부 자유주의자들 몇몇은 1859년 7월 19일 하노바에서 만났다. 이 두 모임은 독일의 통일정책에 대해 소독일주의 라는 공통된 의견에 일치하여 1859년 9월 1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국민협회를 창건하여, 프로이센을 통일의 맹주로 추대하였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노동계급이나 수공업자층의 정치적 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오영옥, op. cit., p. 34.

유주의자들은 교육과 지식이야말로 물질적 재화의 궁핍을 관념적으로 보상하거나 퇴치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¹⁸⁾

자유주의적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노동자층을 그들의 정치단체인 민족동맹 (National Verein)¹⁹⁾과 진보당(Fortschrittspartei)²⁰⁾의 예비군으로 생각하였다.²¹⁾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문제 해결방식은 주로 노동자층의 '사회적 시민화(Soziale Einbürgerung)'²²⁾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계층이 지니고 있는 동질성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재산과 교양에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노동자들의 재산과 교양을 증진시키면 사회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비스마르크의 재상 취임으로 위기에 처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관심이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유주의적 의회주의로부터 자유주의적 민족주의'²³⁾로

¹⁸⁾ 한운석, "독일 사회민주주의," p. 473.

¹⁹⁾ 민족동맹는 '신시대'의 시작과 이탈리아와의 통일전쟁의 영향으로 모든 진영의 자유주의자들이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1859년 9월 2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성한 민족적 규모의 정치조직이었다. 그 공언된 목표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단일한 중앙정부의 독일의회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Leonard Krieger, *The German Idea of Freedom: History of a Political Tradition* (Chicago & London: London University Press, 1957), p. 414, 한운석, *ibid.*, p. 474, 주 18 재인용.

^{20) 1861}년 6월 6일에 프러시아 의회의 자유주의 의원들로 구성된 독일진보당은 프로이센 국가의 자유주의화를 위한 헌법투쟁에서 프러시아의 중산층을 대변하는 주요기구였다. 진보당은 대중과 시민층의 동맹을 목표로 하였지만 그 정강의 본질은 중산층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ibid.*, pp. 429~432, 한운석, *ibid.*, 주 19 재인용.

²¹⁾ 자유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프랑크푸르트 자이통지 발행인인 레오폴드 존네만 은 교육 클럽을 '사회주의를 막아내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Roger Morgan, *The German Social Democrats and the First International 1864~1872* (Cambridge, 1965), p. 14.

²²⁾ Wolfgang Köllman, "Politische u. Soziale Entwicklung der deutschen Arbeiterschaft 1850-1914," *Vierteljahrschrift für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No. 5 (1964), p. 488, 한운석, *ibid.*, p. 475 재인용.

²³⁾ Leonard Krieger, op. cit., p. 405, 한운석, op. cit., 재인용.

변모하게 되자, 자유주의들과 노동자층의 동맹관계는 깨어지게 되었다.24)

1862년에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주도권이 위협에 직면하자, 자유주의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중산층과 노동자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보통선거권과 자유주의의 정치운동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면서도, 그러한 공동전선은 중산층의 지도하에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자들은 공공문제들에 관여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족운동은 중산층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⁵⁾

이에 노동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1862년 초부터 '전독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민족문제와 사회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해 진보당 자유주의자들은 프로이센 의회의 정신적 기반위에서만 수행 가능한 순수 정신적인 헌법투쟁을 위태롭게한다는 점²⁶⁾에서 반대하였다. 한편 노동자들은 민족동맹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자들이 민족동맹에 가입되길 바랬으나 민족동맹의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²⁷⁾

이처럼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요구가 좌절되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에 의한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강구하게 되었다. 베를린에서는 '수공업자 연합회(Handwerkervereine)'가 다시 소생되었고, 라이프찌히에서는 1861년 '상공업 교육연합회(Gewerbliche Bildungsvereine)'가 설립되었다. 특히 라이프찌히의 교육연합회 중에서 자유주의와는 독립되어 정치적 문제를 다루려는 소수 과격파들이 주동이 되어 라이프찌히에는 '전독일 노동자 대회 소집을 위한 중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함)'가

²⁴⁾ 한운석, *ibid.*

²⁵⁾ 한운석, "독일 사회민주주의," pp. 475~476.

²⁶⁾ S. Na'aman., *Von der Arbeiterbewegung zur Arbeiterpartei* (Berlin; Colloquinn Verlag, 1976), p. 13.

²⁷⁾ L. Krieger, op. cit., p. 418, 한운석, ibid., p. 478 재인용.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베를린 노동자대표들은 1862년 10월에 '국민협회' 대표들과 정치적 제휴에 대한 협상을 하였다. 슐쩨-델리취는 노동자들을 '국민협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하여, 단지 '정신적 명예회원'으로만 칭하도록 허용하였다.²⁸⁾ 이에 위원회는 1863년 2월, 노동자 정당을 설립하도록 충고하였던 라살레에게 하나의 프로그램 초안을 요청하였다.²⁹⁾

라살레는 1825년 브레슬라우의 한 유태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30) 그는 소년 기에 피히테(Fichte)와 헤겔(Hegel)에 열중하여 마르크스처럼 '청년 헤겔파'에 가입하였다. 1840년대에 마르크스를 알게 되어, 1848년 혁명 당시에는 마르크스가 주관하였던 『신라인』에도 관여하였으며, 1849년 공산주의자 연맹 회원이 되었다. 그는 1849년에 라인 지방의 봉기에 참여하여 민중을 선동하고 <관리에 대한 폭력적 저항요구>라는 글로 투옥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혁명 기간동안 조국에 남아 있을수 있었다. 이후 라살레는 베를린에서 마르크스・엥겔스와 교류를 가지며, 자신의철학적 연구에 몰두하였다. 베를린에서 라살레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저술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857년 『에페소스의 어두운 철학자 혜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저술하였고, 1858년 희곡 『프란츠 폰 지킹겐(Franz von Sickingen)』을 출판하였다. 이 작품에서 라살레는 1848/49년 혁명의 실패를 중세시대의 귀족과 기사 계급의 충돌에 빗대어 묘사하였다.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진 1859년에 최초의 정치적 저술인『이탈리아의 전쟁과 프로이센의 과제: 민주주의의

²⁸⁾ G. Fesser, Linksliberalismus und Arbeiterbewegung. Die Stellung der deutschen Fortschrittspartei zur Arbeiterbewegung 1861–1866 (Berlin; Colloquinn Verlag, 1976), p. 157.

²⁹⁾ 노동자들이 라살레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저서 『노동자강령』때문이었다.

³⁰⁾ 라쌀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은 Grebing, *op. cit.*, pp. 50-51; 오영옥, *op. cit.*, pp. 39-43 참조.

한소리』를 썼는데, 이 당시 라살레의 이탈리아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발언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라살레는 롬바르디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원리"라고 정당화시켰다. 그리고 1861년에는 『기득권의 체계 (Das System der erworbenen Recht)』가 출간되었다. 이 저작에서 라살레는 실정법과 법철학과의 조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였다. 즉 그는 법률제도가 '역사적 정신개념', 여러 가지 역사적 '민족정신', '시대정신'의 실현이라고 해석하였다.

1862년 4월 12일에 베를린 교외에 위치한 오라니엔부르크의 수공업자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라살레는 <현재의 역사 시기와 노동자계급의 이념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를 연설하였다. 이 연설문은 『노동자강령(Arbeiterprogramm)』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소책자가 발간되자 경찰에게 몰수당하고, 저자는 기소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살레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에서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였다. 이 사건의 경과로 인해 노동자들이 라살레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라살레는 <헌법 본질에 대하여(Über die Verfassungswesen)>란 강연도 하였다. 1862년 7월 라살레는 런던을 여행하며 세계박람회도 구경한 후, 마르크스와 토론하였으나 의견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귀국한 후, 베를린에서 삼급 선거권을 고수하는 독일진보당과 투쟁하기 시작하였다.31)

1863년 2월 '라이프찌히 노동자위원회'의 요청으로 라살레는 노동계급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라이프찌히 전 독일 노동자 대회 소집위원회에 대한 공개서한 (Offenen Antwortschreiben)』으로 작성하여 1863년 3월 1일에 발표하였다. 『공개서한』 32)에서 라살레는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임금철

³¹⁾ 임미성, "F. Lassalle의 정치사상" (문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6), p. 6.

³²⁾ 라살레의 『공개서한』에는 세 가지 주요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의 독립된 노동운동이고, 둘째는 보통선거권의 확보이며, 셋째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생산조합의 설립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진보당을 비판하면서 노동자층의 독자적인 정치 정당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이 당의 표어와 기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ADAV의 이념

칙'을 설명하고 국가의 원조에 의한 노동자의 생산조합을 제안하였다. 이 문헌은 독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1863년 5월 'ADAV'가 결성되었는데, 노동자들은 보통선거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라살레를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리하여 라살레는 '작으나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지도자'가 되었다.33)

그가 선동을 시작하던 1862년부터 라살레는 이전에 자기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였다. 물론 처음부터 진보당과 결별한 것은 아니었다. 1862년 그는 진보당과 공동노선을 시도하여, 48년의 민주주의 투쟁을 재개하고보통선거권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편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확장을 위해 투쟁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삼급 선거권의 관철과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데만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라살레는 진보당의 민족혁명적인 추진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족적자유주의의 세력도 신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의 모든 정치적인 활동의 방향은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으로 모아졌다. 이러한 그의 정치신념은 그로 하여금 자유주의자들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보수세력과의 연합도 주저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프로이센 정부를 '인민의 군주정(Volkskönigtum)'이라고 옹호하였으며, 중산계급에 대항하는 군주정과 노동자간의 연대를 주장하였다.34) 라살레는 비스마르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노동자층은 만일 독재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행사됨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F. Lassalle, *op. cit.,* p.170~200.

³³⁾ 라살레는 1864년 1월에 자유주의자 협동조합 설립자인 슐쩨-델리쯔쉬에 도전하는 투쟁서를 출판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프로이센 수상인 비스마르크와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그는 1864년 『자본과 노동』을 출간하고 여름에 스위스로 휴양 갔는데, 여기에서 얻은 결투의 상처로 1864년 8월 31일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 Grebing, *op. cit.*, pp. 61-62.

³⁴⁾ 임미성, *op. cit.*, pp. 5-6.

진실로 독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국왕이 …… 특권신분들의 왕국을 사회적·혁명적인 인민왕국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노동자층은 …… 국왕을 시민사회의 이기주의와 대립되는 사회적 독재의 당연한 운반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35)

1862년부터 프로이센에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간의 대립이 첨예화하였다.36) 이러한 정치적 긴장을 이용하여 라살레는 노동자들에게 중산계급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노동자계급에게 그들은 다만 삼급 선거제에서 제 3급의 선거인일 뿐,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인식시키고, 노동자계급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세력 이외에 제 3세력으로 형성시켜 정치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일으키려고 하였다.37) 그래서 『공개서한』에서 그는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들이 현존의 제도하에서는 자기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임금철칙'은 일군의 노동자 집단이 높은 임금을 확보하면 여타집단의 임금은 저하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문제는 보통선거에 입각한 국가가 모든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의 생산물을

³⁵⁾ 한운석, "독일 사회민주주의," p. 481.

^{36) 1860}년에 국왕은 군사력의 증강과 군제개혁을 의회의 동의 없이 실시하였다. 이에 의회(다수당은 진보당이 차지하고 있었다)가 정부의 군제 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였고, 국왕도 의회를 해산시키고, 보수 내각을 발족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우보수파 정통주의자인 비스마르크가 1862년에 프로이센의 재상이 되었다. 그는 상·하 양원의 불일치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 규정이 없는 것을 구실로, 하루라도 국가 생활이 중단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긴급권을 발동, 예산 승인 없이 통치를 강행하였다. 이로써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무시되고 병역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헌법 투쟁(Verfassungskonflikt)으로 치달았다. 이민호, 『독일사』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6), pp. 157-159.

³⁷⁾ 오영옥, op. cit., p. 38.

완전히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창설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38)

라살레는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진적인 진보에 의한 노동운동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혁명이란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항상 한 사회의 사회적 상황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 외부적 · 법적 승인과 철저한 수행을 수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혁명을 일으키려는 의지는 역사법칙을 완전히 알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미 한번 사회의 태내에서 완성된 혁명을 억제하고 그 법적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탄생에 참여하는 사회 또는 개인에게 급진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철없는 짓이다.39)

라살레의 지도하에 있던 ADAV는 정관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통·평등·직접선거를 통해서 독일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고, 사회에서 계급의 대립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ADAV을 창설하고, 독일 연방국에 하나의 연합을 이룩한다. 이 연합의목표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특히 직접·보통·평등선거의 회복을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40)

³⁸⁾ N. Mackenzie, *Socialism:* A Short History, 양호민 역, 『사회주의』 (서울: 탐구신서, 1992), pp. 83-84.

^{39) 『}노동자강령』, E. Bernstein, *Geasmmelte Reden u, Schriften* II (Berlin: Verlegt bei Paul Cassirer, 1919), p. 165.

⁴⁰⁾ Grebing, op. cit., p. 50.

ADAV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특히 직접·보통·평등선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서, 그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계급투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확고한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강령상으로 볼 때 ADAV는 사회주의라기 보다 오히려 점진적 개혁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AV는 확고한 반(反)부르주아적 노동자계급당이었다. 노동자들이 민주화된 국가의 지배권을 일단 장악하게 되면, ADAV가 사회주의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점이 노동자들에게 널리 수용되었다.41)

ADAV의 조직규정은 의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뒤, 의장에게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에 의해서 지명되는 대표가 지방조직을 관리하였다. 42) 그래서 ADAV는 상당히 중앙집권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당이었다. 그리고 ADAV의 당수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다른 정당에 비해서 권위주의적 지도력을 행사하였다.43)

ADAV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정기적으로 당비를 모금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였다. 당시의 다른 정당들은 대개 저명인사와 느슨한 연고관계를 가지 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당들은 선거상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시기에 당을

⁴¹⁾ Albert S. Lindemann, *History of European Socialism*, 오주환·진원숙 옮김, 『서양 사회주의 역사』 (대구 : 경북대학출판부, 1983), p. 151.

⁴²⁾ A. Klönne, *Die deutsche Arbeiterbewegung: Geschichte - Ziele - Wirkungen* (Köln: Eugen Diedericha Verlag, 1980) p. 44.

⁴³⁾ 뢰쉬너(H. Löschners)는 당시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빈틈없는 정치 투쟁도구를 만들고자 한 의도로 해석, 아벤도르트(W. Abendroth)는 반혁명의 승리이후 백색공포라는 당시의 상황 하에서 지도자 숭배와 독재적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60년대에 등장한 신세대는 교육의 결핍과 자유의 결핍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젊은노동자계급으로써, 라살레의 모범과 도움 덕분으로 생성되었던 이들 세대는 라살레에게서 거의 초인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클뢰네(A. Klönne)는 라살레의 독재적 사상에서 이 조직의 독재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즉라살레의 독재적인 성격이 잘 반영된 것이 ADAV의 조직구조라는 것이다. 고재백, op. cit., p. 26, 주 70.

조직하거나, 소수의 부유한 지지자들이 내는 거액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44)

ADAV는 농촌지방의 방적공들과 가내수공업자들, 연초노동자들(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가내수공업에 종사하였던), 미장이들과 소목장이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얻었다. 반면 고용주들, 여전히 자유주의자들을 따르고 있던 노동자 교육협회의 대다수 노동자들, 그리고 1870년대에도 여전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베를린의 기계공들처럼 높은 자질을 가진 도시의 노동자들에게서는 적은 지지를 얻었다. 45)

라살레의 사후에 조합을 통한 자조와 국가보호가 강조되어, 그의 후계자 슈바이 째(Johann Bapptist von Schweitzer)의 주도로 1868년 9월 26일 베를린에서 '전독일 노동조합(Allgemeine Deutsche Arbeiterschafts Verband: ADASV)'이 창설될때까지, ADAV는 상조보험조합, 노동조합, 그리고 파업을 혁명의 길로부터의 이탈이자, 견고한 조직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거부하였다.46) ADAV는 1875년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통합될 때까지 주로 프로이센 지역인 북부지방의 노동운동을 지도해 나갔다.

ADAV를 꾸릴 만한 수의 노동자가 라살레 주변에 모였으나, 노동자 교육협회의 대다수는 여전히 자유주의 좌파⁴⁷⁾나 민주주의자들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래서 1863년 8월 ADAV의 회원은 약 1,000명 정도였다. 그리고 설립 1년 후인 1864년

⁴⁴⁾ Lindemann, op. cit., pp. 151-152.

⁴⁵⁾ Kocka, *op. cit.*, p. 345; W. Carr, *A History of Germany 1815~199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p. 81.

⁴⁶⁾ Kocka, *op. cit.*, p. 345.; 이은주, "19세기 독일 노동조합 운동에 관한 일고찰" (문학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1989), p. 14.

^{47) 19}세기 중반 독일은 의회주의적인 참정 가능성을 보장하는 능률적인 정치체제의 마련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층 내부에 입헌왕정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우파'와 민주적 입헌체제를 요구하는 '자유주의 좌파'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세력의 분화가 뚜렷하였다. T. Offermann, *Arbeiterbewegung und liberales Bürgertum in Deutschland 1850~1863* (Bonn, 1979), pp. 26~46, 고재백, *op. cit.*, p. 4 재인용

ADAV의 회원은 약 4,6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당시 '교육과 저축'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 중산층이 영도하는 노동자 교육협회에는 훨씬 못미쳤다.⁴⁸⁾

라살레주의, 특히 보통선거권, 국가지원하의 생산조합, 임금철칙설, 완전한 노동수익 등의 개념들은 슈바이쩌에 의해 계승됨으로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활발하게 받아 들여지기 시작한 1880년대까지 독일의 노동자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49) 그러나 라살레와 슈바이쩌의 독재적인 당운영방식과 친비스마르크 태도는 당지도자들을 탈당하게 만들었다.

ADAV는 조직정관과 행동강령 및 강력한 조직을 갖춘 근대적인 정당의 원형500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ADAV가 유럽 최초의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이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510 이후 라살레의 사상은 독일 사회민주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⁴⁸⁾ 정현백, "독일 노동운동과 사회민주당", 이민호 외, 『독일사의 제국면』 (서울: 느티나무, 1991), p. 186; 오영옥, *op. cit.*, p. 55.

⁴⁹⁾ 한운석, "독일 사회민주주의," p. 20.

⁵⁰⁾ S. Na'aman, "Arbeitervereine, Arbeitertage und Arbeiterverband-drei Etappen auf dem Weg zur Arbeiterpartei," Dieter Dow(H. g.),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r Vererivstage deutscher Arbeitervereine, 1863~1869* (Berlin: Colloquinn Verlag, 1980), p. 9.

⁵¹⁾ 라살레를 비판했던 마르크스도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인 ADAV과 창설자로 써의 라살레의 업적을 인정하였다.

2. 베벨과 SDAP(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

라살레의 출현으로 위기를 느낀 민족동맹과 진보당 내부에서는 1863년 6월 7일 그들과 동조하는 노동자 단체를 소집하여 프랑크푸르트에서 제 1차 연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슐쩨-델리취를 '노동자의 아버지(Vater der Arbeiter)'로 추대하고, 노동자의 교육에 주력하여 그들의 사회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도하에 'VDAV'가 결성되었다.52)베벨은 직업 교양협회의 대표로 파견되었으며 프랑크푸르트 노동자 교양협회에서는 라살레파 5명이 대표로 파견되었다. VDAV에 참여한 대표를 간에 어떤 통일적인 정치적 노선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부르주아자유주의적인 성격이 지배적이었다.53)

VDAV은 결성 당시 노동자교양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조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직구조를 지닌 협의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조직정관에 잘 나타나 있다.

⁵²⁾ 나아만(Na'aman)은 메링(Mehring)(VDAV가 노동자들에게 ADAV에 대한 대체조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기록)이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ADAV을 VDAV의 선도자나 추동자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VDAV가 ADAV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독자적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한다. 버커(Birker)는 연합체 결성을 위한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들어 VDAV의 결성을 ADAV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한다. 그러나 ADAV의 결성을 계기로 연합대회가 급히 결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고재백, *op. cit.*, p. 30, 주 84.

⁵³⁾ 이들 다수는 그 전부터 대독일적인 그리고 많든 적든 공화주의적인 신념을 지닌 자유주의자(민주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친프로이센적인 진보당원들이나 보다 우파적인 민족동맹회원들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연합대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Gralus 클럽에서 보낸 전보문는 다음과 같다. "슐쩨-델리취만세, 형제들이여 라살레의 멍에를 깨뜨리고 독일 조국을 위해 손에 손잡고 일치단결 전진합시다." 고재백, ibid., p. 31, 주 88, 주89.

연합대회는 정기적으로 매 1년마다, 노동자들 자신들 사이에서 얻게 되는 의견과 경험들에 대한 생생한 개인적 교환을 통해 그들의 진실된 이해관계의 협조를 확대시키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인식을 인지시키기 위해독일노동자조직연합 대표들의 자유로운 회합을 개최한다.54)

VDAV는 노동자의 정신적 개선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봉건적 반동'과 투쟁한다는 새로운 결의에 의해 프로이센 군출신 귀족과 헌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재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55) 베벨은 VDAV에 정치적 임무를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56)

베벨은 '라살레파'의 독자 노동자정당의 결성을 "노동자 진영의 심각한 내분의 신호"57)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베벨의 정치적 입장이 1865년 이후 뚜렷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노동자계급의 정치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로부터의 노동운동의 분리, 사회적 변혁 및 독일의혁명적 통일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베벨의 정치적 입장 변화58)의 요인 중 첫째는 리프크네히트의 개인적인 영향이다.59) 리프크네히트는 3월혁명과 바덴 폭동에 가담하였으며, 런던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1862년 베를린으로돌아와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신봉자60)로 늘 1848년 혁명의 자유주의적 이념에

⁵⁴⁾ D. Dow(H.g.), op. cit., p. 7

⁵⁵⁾ W. H. Maehl, August Bebel - Shadow Emperor of the German Workers (Philadelphia, 1980), p. 32.

⁵⁶⁾ 고재백, op. cit., p. 33.

⁵⁷⁾ A. Bebel, *Aus minem Leben*, 5. Auflage (Berlin, 1978), p. 70, 고재백, *ibid.*, p. 34 재인용.

⁵⁸⁾ 베벨의 정치적 입장 변화의 요인들에 대한 서술은 고재백, ibid., pp. 34-43 참조.

⁵⁹⁾ W. H. Maehl, *ibid.*, pp. 38-39

⁶⁰⁾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리프크네히트의 지식에 대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심각하 게 의문시하고 있었다. Engels an Marx, 1867. 12. 6. in : MEW, Bd. 31, p. 402, Marx an Engels, 1868. 1. 25, in : MEW, Bd, 32, p. 24, 고재백, *ibid.*, p. 35 재인용.

강하게 집착하였다. 그는 1865년 라이프찌히에서 베벨과 사귀게 되었다.61)

베벨은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으며, 1864년 제1인 터내서널의 설립당시 마르크스가 행한 개회연설을 1865년에 초에 처음으로 읽었고 1866년 그곳에 가입했다. 그는 이 개회연설을 읽고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리프크네히트 없이도 자신은 사회주의자였을 것이며, 그와의 교류는 자신의 사회주의로의 정치적 사상적 전환을 다만 촉진하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62) 그러나 베벨은 리프크네히트의 도움으로 마르크스 - 엥겔스와 교류하게 되었고, 프로이센 반동과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적절한입장, 독일의 공화국형태로의 통일에 대한 주요 적인 프로이센에 대한 혁명적 투쟁의 필요성 등의 인식을 얻게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본다. 이에 마이어는 "베벨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에서 혁명적 민주주의자로 전향한 것은 리프크네히트의업적"63)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로 그는 라살레파와의 논쟁과정에서 점차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당시 모든 상황의 진척을 통해 소위 슐째적인 자조를 통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회고⁶⁴⁾하고 있다. 베벨은 1869년에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하는데, 이 소책자에서 라살레적인 의미인 국가가 재원을 부담할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해서 진술하고있다. 또한 라살레와 똑같이 베벨도 슐째-델리취가 주장한 소비협동조합에 대한 경시적인 평가를 하였다.

⁶¹⁾ Grebing, op. cit., p. 60.

⁶²⁾ A. Bebel, *ibid.*, pp. 107-108, 고재백, *op. cit.*, p. 35.

⁶³⁾ G. Mayer, *Johann Baptist von Schqeitzer und Die Sozialdemokratie* (Jena, 1909), p150, 고재백 *ibid.*, p. 37 재인용

⁶⁴⁾ Leidigkeit, Wilhelm Liebknecht und August Bebel in der Deutschen Arbeiterbewegugng 1862~1869, p. 70-72, 고재백, ibid. 재인용.

소비협회를 통해 노동자의 다수가 자신의 생활필수품을 보다 공정한 값에 얻게 되면, 이것이 지배적인 임금철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임금은 그 이윤에 해당하는 분량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65)

이는 마치 라살레의 『노동자 강령』의 내용 중 임금철칙과 유사하다.

셋째의 요인으로는 1865년 노동자 파업의 영향이다. 1865년 4월에 라이프찌히에서 인쇄공이 중심이 되어 동맹파업이 발생하였다. 이에 VDAV 상임위는 팜플렛을 통해 파업을 옹호하였다. 라이프찌히 인쇄공 파업에서 독일의 제일급 법관들로 구성된 추밀고문관(Geheimrates von Wächter)들의 중재노력이 실패한 후 파업 중재에 나선 베벨은 이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적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민층의 교양사도로서의 자유주의자들의 역할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다.66 파업기간 중에 보인 자유주의자들의 냉담하고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베벨은 다음과 같은 글을 상임위원회 팜플렛에 발표하였다.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보냈고 스스로를 노동자의 벗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부류로부터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는 가장 결정적인 반대에 직면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들이 라살레주의와 무관했던 노동자들에게서도 진보당 일부의 행동에 대해 결코 만족스러운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같은 행동은 노동자들에게서 어떠한 공감도 얻을 수 없었다.67)

⁶⁵⁾ 고재백, *op. cit.*, p. 38.

⁶⁶⁾ Leidigkeit, *ibid*, p. 68, 고재백, *ibid*., p. 40 재인용.

⁶⁷⁾ A. Bebel, op. cit., p. 95, 고재백, ibid., p. 41 재인용.

한편 독일 자유주의세력의 분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1865년 9월 18일에 진보당의 친프로이센적인 입장에 찬성하지 않은 남독일 민주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일인민당(Deutsche Volkspartei)'을 결성하였다. 친프로이센적이고 소독일적인 입장을 가진 진보당에 맞서, 대독일적이고 연방제적인 입장을 주장하였다. 인민당소속의 지도적 인물들은 VDAV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때에만 자신들의 정책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68)

이와 같이 베벨은 진보당과 민족동맹의 지지 입장을 탈피하여 새로운 정치적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베벨은 1860년대 중반까지 마르크스주자 혹은 '급진적사회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정치적 민주주의자'에 가까웠다.⁶⁹⁾

1865년 9월 3-5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제 3차 VDAV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와 결사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급진화를 보여주고 있다.70) 이 대회는 '좌파로의 결정적인 전환' 혹은 '좌파의 우위'의 대회로 일컬어진다.71) 이 당시 '좌파'란 1863년 ADAV 결성 이후 라살레와 그 지지자를 의미하였다. 라살레파로 노동운동 진영의 일부가 경도된이후 자유주의적인 민족협회 지도부(존네만, 비르트 등)와 일부 노동자 교육협회는 '좌파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하는 데 노력하였다.72)

또한 이 대회에서는 라살레가 주장하는 보통선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제3차 노동자연합대회는 …… 보통ㆍ평등ㆍ직접 선거권은 독일노동자의

⁶⁸⁾ K. Birker, *Die deutschen Arbeiterbildungsvereine 1840~1870* (Berlin :Colloquinn Verlag, 1973), p. 63.

⁶⁹⁾ 고재백, op. cit., p. 43.

⁷⁰⁾ A. Bebel, *ibid.*, p. 96, 고재백, *ibid.*, p. 46 재인용.

⁷¹⁾ 고재백, *ibid*.

⁷²⁾ *ibid*.

정신적·물질적 모든 요구에 대한 주요수단으로서 전력을 다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 결의한다.73)

베벨은 보통선거권에 대한 스투트가르트대회의 승인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 그리고 이후 ADAV와의 통합으로의 방향에 대한 결정적인 동인을 보았다고 회고하고 있다.⁷⁴⁾ 라살레파와의 합병은 1875년에나 가능하지만, 이 대회의 직접적인 결과는 독일인민당의 에카르트(Ludwig Eckardt)의 노력이다. 에카르트는 독일인민당의 '순수 민주주의의⁷⁵⁾'에 대한 VDAV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다.

1867년 10월 6-7일에 개최된 제4차 연합대회에서 베벨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VDAV내의 무게중심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에서 노동계급의 지도자로 옮겨 졌음을 보여준다. 76) 제5차 연합대회는 1868년 9월 5-7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베벨은 자유주의적인 사상 특히 슐쩨-델리취적인 사상으로부터 단절과 마르크스주의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자협회(IAA)77)의 강령을 VDAV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제5차 연합대회에서는 VDAV의 강령으로 IAA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78) VDAV가 IAA의 강령을

⁷³⁾ D. Dow(H.g.), op. cit., pp. 90-92.

⁷⁴⁾ 고재백, op. cit., p, 49.

⁷⁵⁾ 독일 인민당이 형성되었을 때 자유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전체운동이 '순수한' 즉, 비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사회주의에 대한 암시를 강령에서 모두 배제하려고 하였다. R. Morgan, *op. cit.*, p. 15.

⁷⁶⁾ W. H. Maehl, op. cit., p. 55.

^{77) 1864}년에 마르크스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제 1 인터내셔날을 의미한다.

⁷⁸⁾ 뉘른베르크의 강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노동계층의 해방은 노동자층 스스로의 획득해야 한다. 2. 노동자들은 생산수단(특히 토지소유)의 독점에 종속되어 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예속, 사회적 빈곤, 정신적 타락과 정치적 종속의 근원을 형성한다. 3. 정치적 자유는 노동계층의 경제적 해방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불가분 관계이다.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민주주의적 국가내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곳에서만 가능하다.

채택한 이유는 두가지였다. 첫째, ADAV의 슈바이쩌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마르크스는 리프크네히트와 베벨쪽 사람들이 라살레파보다 IAA의 대의에 보다 덜 충실하다고 말하곤 했다. 이런 점에서 베벨 등은 IAA의 영향력을 라살레파가 독차지하는 것을 염려하였다. 79) 둘째는 강령이 없었던 VDAV에 명확한 강령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정치기구로 강화시키려는 전술적 이유 때문이었다. 베벨은 1868년 7월까지도 IAA의 강령을 몰랐다. VDAV와 인민당은 8월 중순까지 브락케(Wilhelm Becker)가 IAA를 소개한 <우리의 원망과 당위>를 IAA의 강령으로 소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즉 VDAV에 있어서 강령은 내용보다 강령 자체가 더 중요하였던 것이다. 80) 그러나 이 강령채택으로 인하여 VDAV가 비사회주의적인 독일인민당과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었다.

1869년 8월 7일에 리프크네히트와 베벨은 ADAV에서 탈당한 일부 사회주의자들⁸¹⁾과 VDAV를 기반으로 아이제나흐에서 독일노동자대회를 소집하였다. 이 대회에서 VDAV는 노동계층의 정치운동에 대한 자각의 결과로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 (SDAP, 아이제나흐파)'이 창설되었다. 아이제나흐파의 아이제나흐 강령은 마르크스의 서적들을 탐독하였던 브락케와 리프크네히트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아이제나흐 강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82) 첫째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기

^{4.} 서로 다른 국가들의 노동계층 사이에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야 한다. S. Na'aman, *op. cit.*, pp.135-140.

⁷⁹⁾ Cone & Groh, op. cit., p. 76.

⁸⁰⁾ *ibid.*, pp. 77-78

^{81) 1869}년 6월 중반 슈바이쩌가 라살레사후 탈퇴한 라살레파(Lassallescher 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e)를 ADAV에 재결합시킴으로서 자신의 독재적인 의지를 재입증하였다. <라살레당 통합회복>에 관한 선언문에 의해 6월 24일 통합되었다. 이 사건은 슈바이쩌가 자신의 독재권을 회복하려고 계획한 '쿠데타'로 불리운다. A. Bebel, *op. cit.*, p. 251, 고재백, *op. cit.*, p. 69, 주 15 재인용.

⁸²⁾ 아이제나흐 강령은 Willi Eichler, *Hundert Jahre Sozialdemokratie*, 『독일 사회민 주주의 100년』, 이태영 역 (서울 : 중앙교육문화, 1989), pp. 1534-155.

본강령인데, "아이제나흐파는 자유로운 인민국가의 건설을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부분은 이론적인 기본원칙을 담고 있으며, 셋째부분은 국가에 대한 직접 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둘째부분: ① 현 정치/사회상황은 고도의 불법상태, 투쟁의 대상 ② 노동계급의 해방투쟁의 목적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급지배의 폐지 ③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노동이익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적 활동을 통한 임금체계의 폐지 ④ 정치적 자유는 노동계급의 경제적 해방의 최고의 불가결한 전제,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의 비분리 ⑤ 통일된 조직 ⑥ IAA의 지부로써 IAA의 모든 계획에 가입.

셋째부분: ① 모든 선거에서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② 인민을 통한 직접적 입법의 도입 ③ 신분, 소유, 출신, 종교의 모든 특권 폐지 ④ 상비군의 국민군으로 대체 ⑤ 교회와 국가, 교회와 학교의 분리 ⑥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공적 교육기관의 무료 교육 ⑦ 사법권 독립, 공개재판 등 ⑧ 모든 언론, 결사, 집회법의 폐지 정규노동시간 도입, 여성노동 제한, 어린이노동 금지 ⑨ 간접세 폐지, 단일한 직접적 소득세와 상속세 도입 ⑩ 민주적보증하에서 협동조합체의 국가적 장려, 자유로운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신용대부

이 강령은 당의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먼저 이 강령은 IAA 강령을 반영하고 이다. 둘째로 ADAV 출신자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로 베벨과 리프크네히트가 여전히 중요시히 온 '정치적 자유, 민주적 국가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이 강령은 전통적인 시민민주주의적 목표와 라살레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절충적인 강령이었다.83) 당 강령의 절충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내통합이 잘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베벨과 리프크네히트가 '프로이센 반동과 비밀리에 결합된

슈바이쩌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아이제나흐파의 조직은 ADAV과는 대조적이었다. 아이제나흐파의 운용이 독재로 변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의 실행기구로써 5인의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중앙위원회 위원으로는 라살레당 탈당파(대표적으로 브락케가 있음)와 베벨과 리프 크네히트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업무를 감독하는 11인의 통제위원회가 있었는데,⁸⁴⁾ 통제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대한 재정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아이제나흐파는 견제와 균형을 구비한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⁵⁾

그러나 아이제나흐파는 자유로운 민주국가의 설립과 정치적 개혁을 보다 강조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인민당과 노동운동의 정치적 협동이 최소한도로나마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86) 그런데 인민당과 노동운동을 최종적으로 분리시킨 것은 토지국유화 문제였다. IAA는 1869년에 개최된 바젤대회에서 토지국유화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아이제나흐파가 이 결의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이탈하여 노동자계층만이 남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슈바이쩌는 리프크네히트과 베벨을 반(半)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87)

⁸³⁾ W. H. Maehl, op. cit., p. 65.

⁸⁴⁾ A. Bebel, op. cit., pp. 256-257, 고재백, op. cit., p. 74 재인용.

⁸⁵⁾ 한운석, "독일 사회민주주의," p. 489.

⁸⁶⁾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아이제나흐파를 '우리 당'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나, 사적으로는 이 당이 인민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던 상황과 이 당의 관점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관점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라는 사실 때문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했다. 더욱이 마르크스는 아이제나흐파에 대해 "인민당, 자유주의적 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ibid.*, p. 488; Engels an Marx, 1869. 7. 6. in: MEW, Bd. 32, pp. 334-335, 고재백, *ibid.*, p. 75 재인용; W. H. Maehl, *ibid.*, p. 66.

⁸⁷⁾ 슈바이쩌는 바젤 대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여부로 인해 어떤 사람이 사회주의의 적인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운석, "독일 사회민주주의," p. 488, 주 80.

인민당원인 프레제는 베벨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였다. 이에 베벨은 <우리의 목표(Unsere Ziele)>라는 글을 발표하였다.(1870년 2월 9일~5월 16일) 베벨은 그 글⁸⁸⁾에서 라살레의 이념에 근거하여, 융커-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계급갈등을 타파할 유일한 방법은 독일은행의 후원을 받는 농업노동자의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재정후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권계급들에 의한 민족의 지배가 없는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으로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즉각적 폐지와 집단적인 국가적 소유로의 변형을 주장한 IAA의 바젤결의와 달리, 베벨은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자 협동조합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젤결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밝혔다.

1870년 6월에 열린 아이제나흐파의 스투트가르트대회에서 바젤결의가 인준되었다. 이로 인해 인민당의 온건파는 아이제나흐파에 대한 적개심을 노출시켰으며,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부르주아의 민주주의자들과 불안정한 결합이 종식되었다. 비로소 아이제나흐파는 완전히 독립된 노동자 조직이 되었다.89) 이러한 조치는 '독자 노동자정당'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던 구 라살레파 출신 인사들의 역할과 활동을 반증하고 있다.90)

아이제나호파와 베벨은 마르크스주의적 정당이나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다. 베벨은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민주적인독일과 군국주의의 폐지, 프로이센의 약화와 고립에 그의 정치적 활동의 주 목적을두고 있었다⁹¹⁾. 베벨과 마르크스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국가관이다. 베벨은 민주적인 국가가 사회주의 즉 정치 경제적 평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⁹²⁾한 반면 마르

⁸⁸⁾ 베벨의 '우리의 목표'에 대한 부분은 A. Bebel, 'Unsere Ziele', in *Ausgewählte* Reden und Schriften, Bd. 1., pp.59-110, 고재백, op. cit., p. 79 재인용

⁸⁹⁾ Morgan, op. cit., p. 30.

⁹⁰⁾ 고재백, *ibid.*, p. 84.

⁹¹⁾ *ibid.*

크스는 사회주의가 계급의 구분을 폐지하면 국가도 폐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1860년대 노동자 정당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독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란 젊은 노동자들에게 '대체 알 수 없는 것'이었고,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마르크스주의를 유행시킨 자로 간주되는 카우츠키(Karl Kautsky)는 70년대 말까지 그 자신을 포함한 독일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마르크스・엥겔스의 이론은 단지 불확실하고 비체계적인 여타 이론과 혼동된 채 알려져 있었다고 말하였다.⁹³⁾ 당시 독일노동자들은 커다란 이념에 의해 움직였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나 사회적 제한, 불의로부터 벗어 나려는 자유 등 일상적인 관심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다.⁹⁴⁾

이처럼 ADAV와 아이제나호파도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민족통일과 사회문제)에 따라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였다. 그래서 두 당의 강령에는 유사점이 보이는데, 아이제나호파의 강령에는 라살레가 주장한 보통선거권, 국가 보조의 협동조합이나 임금 철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두 정당을 설립했던 라살레와 베벨은 마르크스-엥겔스와는 달리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1860년대까지는 독일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860년대까지도 독일 노동운동에서의 영향력은 마르크스보다는 라살레임을 알 수 있다. ADAV와 아이제나호파의 차이점은 민족적인 문제였다. 소독일 친프로이센의 입장인 ADAV와 대독일 반프로이센적인 아이제나하파의 견해 차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두 정당은 1875년에 고타(Gotha)에서 통합대회를 열어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SAPD)'이라는 통합정당을 완성시켰다.

⁹²⁾ S. C. Neitzel, "The Evolution of August Bebel's Social-Political Credo 1861~ 1871," *East European Quarterly* V. 13, N. 1 (1971), p. 85.

⁹³⁾ Grebing, op. cit., p. 63.

⁹⁴⁾ ibid., p. 64.

Ⅲ. 1870년대 노동자정당의 통합과정과 노선

1870/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은 프로이센의 융커세력이 중심이되어 위로부터의 독일통일을 이루었다. ADAV와 아이제나흐파의 차이점은 독일 통일에서의 민족관이었는데, 통일이 됨으로써 이러한 차이점이 극복되었다. 이에 양정당은 1875년 고타에서 단일 정당으로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통합되어제국의회에서 세력을 확장해 갔다. 이에 비스마르크를 비롯한 독일제국의 지배세력은 성장한 독일 노동운동에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자 탄압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탄압법하에서도 꾸준히 세력을 확장시킨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1890년 이후에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으로 개칭하였다.95)

1875년 고타 대회에서 채택된 고타강령은 마르크스주의와 라살레주의 합작물이지만, 여전히 라살레주의적 색깔이 강하였다. 이처럼 독일 사회민주주의에서 라살레주의의 영향은 187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통해 1860년대와의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라살레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자 탄압법과 에어푸르트 강령(Erfurt Programm)을 살펴봄으로써 독일 사회민주주의에서 라살레주의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자정당의 통합과정

1870/1871년 보불전쟁은 사회주의 진영을 민족적 관점과 국제적 관점의 대립으로 몰아 넣었다. 프로이센-독일의 승리는 사회주의 이론의 승리를 위한 단계로 해석할

⁹⁵⁾ Kocka, op. cit., pp. 345-346.

수 있는 측면이 있었으나, 전쟁 뒤 프랑스 공화정의 수립은 사회주의를 제국의 적으로 현실화시켰다. 그리하여 프로이센국가를 민족통일의 지렛대로 입각하였던 라살레의 영향력은 점차 쇠퇴하였다.96) 즉 이후 노동운동은 소독일적·왕조적 시민계급의 강화된 입장에 대한 저항으로 치닿게 되었다.97)

프로이센-독일체제에 의한 독일제국의 안정을 위한 대내적 통치의 골격은 반(反) 공화주의와 반(反)사회민주주의 원칙아래서 융커귀족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비스마르크는 독재정치가, 무기로써 비상사태의 지속과 국가 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군부와 결탁하였다. '제국의 적 (Reichsfeinde)', '제국의 동지(Reichsfreunde)'라는 이름아래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때 그때의 국내외 정세를 최대로 이용하여 반(反)세력과 반(反)사상을 탄압하였다. 비스마르크의 현실정치가 '제국의 적'과 '제국의 동지'라는 극한적 개념까지 동원하면서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공감대를 형성하였기때문이었다. 양자는 카톨릭 교회, 카톨릭 중앙당, 공화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노동대중 등을 탄압과 배제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중앙당%의과 사회민주주의는 국민

⁹⁶⁾ H. Rothfels, "Bismarck's Social Policy and the Problem of State Socialism," *The Sociological Review* (1938), pp. 289-290, 문기상, "독일 사회민주당과 국가사회주의," 『역사교육』, 41 (1987), p. 91 재인용.

⁹⁷⁾ Wolfgang Zorn, "Wirtschaft und Sozialgeschichtliches Zusammenhänge der deutschen Reichsgründungszeit 1850-1879", HZ 197 (1963), p. 324, 문기상, *ibid.*, p. 92 재인용

⁹⁸⁾ 비스마르크는 중앙당을 탄압하기 위해 '문화투쟁(Kulturkampf)'을 전개하였다. 1871년 제국 의회는 카톨릭 성직자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질서를 해치는 성직자의 언동을 금지시켰다. 1872년 프로이센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반카톨릭적 국민자유당 소속 팔크(Adalbert Falk)는 모든 학교 교육을 국가 감독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5월 입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으로 교회에 대한 국가 통제는 한층 강화되어 성직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독일의 김나지움과 대학 교육을 받을 것과 철학,역사,독일 문학에 관한 문화 시험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당의 세력은비약적으로 팽창하였다. 결국 비스마르크는 팔크는 해임시키고 중앙당과 제휴하려고

과 국민국가에 대해 국제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해요소로 인식하고 적대시하였다.99) 그러나 문화투쟁의 명분이 약함을 알고 있는 비스마르크로서는 중앙당과 보수주 의자와 제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판단은 비스마르크의 현실정치 이념인 이른 바 '적과 동지론'에서 중앙당은 '제국의 동지'로,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자계급은 '제국 의 적'으로 탈바꿈하였다.100)

비스마르크는 1870년 이전까지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대중보다는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¹⁾ 비스마르크는 노동계급과 사회민주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사회위험요소로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1860년대 초진보당의 급진적 민주 자유주의자 세력을 꺾기 위해 라살레와의 제휴까지도 시도하였다. "사회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베벨은 만날 용의가 있지만 리프크네히트는 싫다."¹⁰²⁾라는 비스마르크의 태도는 사회민주주의를 크게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당을 더 위험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비스마르크는 급진적 자유주의의 진보당을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싫어했다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를 언제든지 프로이센의 군대로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세력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¹⁰³⁾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는 보불전쟁 당시에 나타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1870년 9월 세당에서 프랑스의 패전이 확실시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프랑스 노동조합 및 여러 단체들과 결속하여 전쟁을 자본가의 전쟁으로 선전하고, 노동자의 불참과 전쟁종식, 전후 무병

하였다. 이민호, 『독일사』, pp. 173-174.

⁹⁹⁾ 정해본, "비스마르크의 현실 정치와 시민계급의 자기 이해와의 관계," 『인문과학』, 4 (1995), pp. 175-176.

¹⁰⁰⁾ *ibid.*, p. 180.

¹⁰¹⁾ *ibid.*, p. 181.

¹⁰²⁾ G. A. Rein, *Die Revolution in der Politik Bismarcks* (Göttingen, 1957), p. 289, *ibid.*, 재인용

¹⁰³⁾ ibid., p. 182.

합, 무배상원칙을 주장하면서, 독일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선동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이 비스마르크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비쳐졌다. 또한 북독일 연방 제국의회에서 아이제나흐파의 베벨과 리프크네히트가 자결권 침해, 전쟁 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알사스-로트링겐병합 반대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인『민족국가(Volksstaat)』에 프랑스 민주공화국 찬양과 합병 반대의 논조를 발표함으로서 아이제나흐파가 국민적 정당이 아닌 국제적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1871년 파리코뮌에서 나타난 인명살상, 문화재파괴, 약탈행위 등 폭력행위는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나아가 마르크스의 파리코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비스마르크에게 충격을 주었다. 1871년 4월 <노동계급투쟁의 세계사적 중요성의 출발점으로서 파리코뮌>이라는 선언과 이어 5월 베벨의 <유럽프롤레타리아의 미래상으로서의 파리코뮌>이라는 제국의회연설은 비스마르크에게도, 자유주의 부르주아에게도 노동자계급과 사회민주주의는 하나이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비쳐지게 하였다.104)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성격을 파악하고 공권력에 의지한 탄압보다 '독일적' 처방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서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운동을 국제적으로만 내버려두지 않고 대내적으로 흡수 처리하려고 하였다. 즉 비스마르크는 1874년 빌헬름 황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노동운동은 문명세계의 병이며, …… 유산계급의 희생이 강요되고, …… 사회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시도에는 경찰력이 아닌 합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105)

187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서 사회민주주의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증가추세에 놀라서 탄압을 시도하였다. 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성장이 불경기¹⁰⁶⁾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¹⁰⁴⁾ 정해본, op. cit., p. 82.

¹⁰⁵⁾ *ibid*.

사회민주주의의 성장이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불확실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실업이 지속된다는 것이었다.107) 특히 1873년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정부는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고자 보호관세를 체결하고, 노동운동에 대항하는 정책을 행하였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ADAV와 아이제나흐파는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파리 코뮌'¹⁰⁸⁾이었다. 1870/1871년의 '파리 코뮌'은 ADAV나 아이제나흐파에게 '코뮌'운동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투쟁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계기로 독일 당국은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이미지를 폭동, 바리케이드, 방화와 같은 소요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파리코뮌'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양정당의 통합조건을 마련하였다.¹⁰⁹⁾ 게다가 1871년의 군사적 승리와 통일에 대한 열기는 초기에는 두 노동자정당의 진전에 제동을 걸었으나, 나중에는 노동자들의 불안한 상태, 당국의 끈질긴 간섭¹¹⁰⁾에 의하여 노동자의 애국적 감정이 중화되었다.¹¹¹⁾

그리고 1871년 제국 창건은 프로이센이 우경화된 자유주의세력의 지원 하에 이

^{106) &#}x27;대불황'은 1873년부터 1896년에 이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으나 독일의 경우 그 중간에 간헐적인 상승국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73-1879, 1882-1886, 1890-1894의 하락주기와 1879-1882, 1886-1889의 상승주기가 교차하였다. 문기상, op. cit., p. 84, 주 28.

¹⁰⁷⁾ 강철구, "비스마르크와 19세기 후반의 독일사회정책," 『청주사범대논문집』, 10 (1981), p. 74.

¹⁰⁸⁾ 문기상, ibid., p. 92.

¹⁰⁹⁾ Vernon L. Lidtke, *The Outlawed Party : Social Democracy in Germany 1878-1890* (Princeton Uni, Press, 1966), p. 39, *ibid.* 재인용.

¹¹⁰⁾ 베벨과 리프크네히트은 1872년 '국사범 재판(Hochyerratsprozeß)'에 말려들어 2년 간 구치소에 있었다. Grebing, *op. cit.*, p. 90.

¹¹¹⁾ Günther Roth, *The Social Democrats in Imperial Germany : A Study in Working-class Isolation and Integration* (New Jersey, 1963) p.54, 문기상, *ibid.* 재인용.

루어졌기 때문에, 이들과 노동자와의 이해대립은 불가피하였다. 이점은 1864년으로 부터 1873년 기간에 노동자의 스트라이크에서 증명되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스크라이크가 903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제국통일 후 3년 기간에 - 1871년에는 188건, 1872년에는 215건, 1873년에는 255건- 658건이 발생하였다.112) 그러나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스크라이크에 대해 고용주들은 공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스트라이크 운동은 다시 침체되어졌다. 그러자 이러한 실패적인 스트라이크를 종결짓고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노동조합적인 조직체가 요구되었다. 이에 국제노동조합에서도 직업조합(Berufsverband)간의 협력문제가 논의되었고, 아이제나흐파는 노동조합의 '연합(Union)'을 창설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1872년 에어푸르트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결과로 지역조직체(Lokalorganisation)가 창설되었으며, 중앙연합회와는 카르텔적 협약을 통한 '연합'만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113)

이러한 '노동 조합의 대두'114)는 양정당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되었다. 노동 조합에 대해 라살레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라살레는 임금 인상을 주목표로 하는 노동조합보다는 노동자의 정치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의 세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구체적 이해를 대변하고 관철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ADAV도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꾸었다. 반면 베벨은 라살레와는 달리 일찍부터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1868년 영국 모형에 따라 안정된 노동조합의 설립 내용을 다룬 모형 법형을 발표하였다.115) 하지만 양정당은 노동조합에게 노동자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정당보다 낮은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해방을 위한 정당 주도의 결정

¹¹²⁾ 문기상, *op. cit.*, p. 89.

¹¹³⁾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은주, op. cit. 참조.

¹¹⁴⁾ 천진석, "라쌀 노동 운동의 현실주의적 성격에 대하여,"『학림』, 6 (1984), p. 197.

¹¹⁵⁾ Grebing, op. cit., p. 52.

적 정치 투쟁에 임할 일꾼들을 키우는 '프롤레타리아의 학교'일 뿐이었다.116)

노동 조합들에 의한 전국적 규모의 파업이 1870~1871년간에 걸쳐 발생하였다. 이 파업의 물결은 노동자정당인 양정당간에 일관된 정책의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다. 더구나 노동 운동 발호에 놀란 정부가 점차 노동 조직들에 탄압을 가하고, 시위 및 노동 쟁의를 불법화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게 되자 양정당은 단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117)

마지막으로 양정당의 차이는 조직 운영의 차이, 일상 정치적인 차이, 인적인 차이에 의한 것에 불과하였다. ADAV의 경우 조직 운영의 권한은 의장에 집중되어 있는 하향식 명령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아이제나흐파의 경우는 5인의 중앙위원회와 11인의 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운영을 맡겼는데, 조직 운영은 상향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이 두 조직은 국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달랐다. 그러나 1871년 1월 독일 제국의 건립으로 인해 독일 민족 통일에 대한 논쟁은 실제로 대상을 잃어버렸고 또 ADAV의 의장직에 있었던 슈바이째의 사직으로 인해 두 노동자 정당의 통합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는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조직 내의 의사 결정 문제가 해결되면 양정당은 통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118) 그래서 정치적인 일상 투쟁 속에서 아이제나흐파와 ADAV의 요구는 서로 더욱 근접하였고 그와 함께 조직성의 융합으로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119)

1874년 1월의 제국의회 선거전에서 베를린 등 많은 지역에서 라살레파와 아이제 나호파의 다소간 조직적인 협동이 이루어졌다. 1874년 12월 15일에 통합 협상이 시 작되었다. 양정당의 숫자가 균등하게 구성된 회의에 하나의 초안을 제시한 리프크

¹¹⁶⁾ 이진모, 『개혁을 위한 연대-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서울 : 한울, 2001), pp. 32-33.

¹¹⁷⁾ 천진석, op. cit., pp. 197-198.

¹¹⁸⁾ F. Mehring, *Geschich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erlin: n. pub, 1960), p. 136.

¹¹⁹⁾ Eichler, op. cit., p. 48.

네히트는 강령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 초안은 1875년 5월 22일-27일 까지 계속된 고타의 통합 대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¹²⁰⁾

¹²⁰⁾ Eichler, *op. cit.*, pp. 49-50. 리프크네히트는 죽을 때까지 고타강령의 작성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노동 운동의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2. 고타강령과 라살레주의와의 관계

1875년 고타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정당의 통합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¹⁾

I. 노동은 모든 부와 문화의 원천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용한 노동은 사회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의 집단 생산은 사회에, 즉 일반적인 의무의기초 위에서 일하는 그리고 평등한 권리에 따라, 각자가 그의 합리적인 욕구에따라 몫을 차지하면서 일하는 그 모든 멤버들에게 속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수단은 자본가 계급의 독점물이다. 노동 계급의 결과적 인 의존 현상은 모든 형태의 비참과 예속의 요인이다.

노동의 해방은 노동의 수단을 사회의 공동 재산으로 변형시킬 것을 요구하며 공공의 선을 위해 유익하게 될 그리고 노동의 결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함께 집단 노동의 공동규제로의 변형을 요구한다.

노동의 해방은 노동 계급의 임무가 되어야 하며, 그와 대조적으로 모든 다른 계급들은 단지 하나의 반동적인 대중(eine reaktionäre Masse)일 뿐이다.

II.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유래하는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인수단을 가지고 자유로운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를 위하여, 임금 노동 제도의 폐지를 통한 임금 철칙의 폐지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의 폐지를 위하여, 그리고모든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비록 국가의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활동하지만, 노동운동의 국제적 특징을 의식하고, 이것이 인간의 형제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¹²¹⁾ Eichler, op cit., p. 156.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 자당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주의자 의 생산자 협동 조합의 건립을 요구한다. 생산자 협동 조합은 모든 사회주의 노 동 조직이 그것들로부터 발생한 규모 위에서 산업과 농업을 위한 존재로 요청되 어질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국가의 기반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1. 국가와 자치도시의 모든 선거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 대한 비밀 투표 및 의무적인 투표와 함께 보통·직접·평등 선거권이 보장되고, 선거일은 일 요일이나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
- 2. 국민에 의한 직접 입법과 국민에 의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 3. 일반 군사 훈련을 위해 상비군 대신 국민군 창설.
- 4. 모든 예외법의 폐지, 특히 출판·결사·집회에 대한 법률 폐지. 일반적으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조사, 그리고 사상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
- 5. 국민에 의한 재판 행정, 자유로운 재판 행정
- 6. 국가에 의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공교육. 모든 사람의 의무적인 학교 교육, 모든 교육 제도들에서의 자유로운 교육, 교육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선언.

현재의 사회안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7. 위의 요구 사항들의 의미에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크게 확대.
- 8. 현존의 세금 대신에, 특히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대신에 국가와 자치 도시들에 대한 단일한 누진 소득세.
- 9. 단체 행동의 무제한적인 권리.

- 10. 사회의 요구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노동 일수, 모든 일요일 노동의 금지.
- 11. 건강과 품행에 해로운 유아 노동 및 모든 부녀 노동의 금지
- 12.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의 보호 법률들,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위생적인 단속,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관리들에 의한 광산, 공장, 작업장, 그리고 가 내 산업의 점검, 효과적인 고용주 의무법.
- 13. 형무소 노동의 규제.
- 14. 모든 노동자들의 보조 기금의 완전한 자치 행정.

고타 강령은 전문과 국가에 관한 요구가 담긴 6조항과 사회에 관한 요구가 담긴 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강령은 ADAV와 아이제나흐파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양당의 지도노선인 라살레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혼합한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고타 강령은 엄밀히 말해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오히려 라살레주의에 더 강하게 기울어진 강령이었다. 동 강령은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수단을 가지고 자유로운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 임금노동제의 폐지를 통한 임금철칙의 분쇄 등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계급에 대해서 다른 모든 계급은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고 규정하는 등 라살레주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반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고타대회 직후에 발표된 <고타강령 비판 Kritik das Gother Programm)>122)에서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의 절충주의적 성격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강령의 라살레주의적 색깔을 비판하였다.123)

^{122) &}lt;고타강령 비판>은 마르크스가 쓴 <독일 노동자당 강령에 대한 논평>을 가리킨다. 이 글은 1891년 엥겔스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엥겔스가 이 글을 애써 출판한 목적은 당시 독일 사회 민주당에서 준동하기 시작한 기회주의적 요소들을 강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 출판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 이유는 바로 그무렵 열린 에르푸르트 대회에서 당은 고타 강령을 대신할 새로운 강령을 검토하고 채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① 기존 라살레식의 노동 개념은 부르주아 국가 내에서의 개념이며, 자본과 노동 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즉 자본주의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 상부구조이며 이러한 틀 내에서의 노동운동은 한계에 이른다는 점 ② 라살레식의 자본가계급 개념에는 단지 자본가 계급만을 규정하고 있지, 토지귀족이나 대지주등과 같은 봉건지배계급 개념을 빠져있고 ③ 자본가 독점으로부터의 노동자 해방이라는 방법 역시 라살레는 부르주아 국가 특속에서의 사회주의 개혁을 통한 실천 입장이라고 한다면,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체제의 폭력혁명을 통한 타파와 본질적인 사회주의혁명 하에서만 진정한 노동해방이실현된다는 입장이며. ④ 라살레식의 민주적 평등선거, 직접입법 등에 의한 사회개혁 입장과 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한 노동문제 해결방식은 진정한 사회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방법이 아닌 개량적 사회주의 방식이다. 124이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민족판 혹은 국가판이 라살레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토대 위에서 역사발전법칙성을 해명하고자 시도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발전의 기본 원칙을 계급투쟁의 속성에서 찾았다면, 헤겔과 피히테의 관념철학의 직접 영향하에 있는 라살레의 사회주의는 역사 속에서 정신적 원칙, 즉 민족정신으로 개별 민족 속에 자신의 형상을 구체화하는 세계정신의 구현에서 찾았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는 계급이 라살레에게는 민족이 핵심개념으로 등장하며, 자본주의사회 전반에 걸친 세계적 규모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라살레는 민족적 토대 위에서 그리고 민족국가 경계 내에서의 자본주의 극복을 지향하였다.125)

또한 마르크스의 고타강령에 대한 비난의 대상은 임금철칙설과 반동적 계급의

¹²³⁾ 최영태, op. cit., p. 21.

¹²⁴⁾ R. C. Tucker ed, *The Marx-Engels : Reader* (New York, 1972) pp. 382-398. 김재선, "독일 사민당(1860-1910)의 정치이념적 성격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5권-2호 (2001), p. 82 재인용.

¹²⁵⁾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서울: 책세상, 2005), p.69.

문제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보통 교육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죄수 노동의 규제 등 실제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126) 마르크스가 비판한 임금철칙에 대해 그는 노동임금체계는 아무리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법칙이 폐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칙은 임금노동체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체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7)

마르크스는 임금철칙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임금철칙 이론이 옳았다면, 설사 임금노동을 백 번이나 철폐해도 이 법칙은 철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항상 임금노동제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실로 이 이론에 근거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지난 50여년 동안이나 사회주의가 자연 자체에서 비롯된 빈곤을 폐지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보편화하여 사회의 모든 표면에 똑같이 분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증명해 왔던 것이다.128)

게다가 마르크스는 라살레이 임금을 '노동의 가치'라거나 혹은 '노동의 가격'이라고 보는데 대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임금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¹²⁹⁾ 이 에 대해 후에 리프크네히트는 그 명칭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그것은 노동계급 의 적에 대한 공격표어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마르크스가 비판한 반동계급의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모든 계급이 하나의 반동계급이라면 수공업자, 소자산가, 농민층도 부르주아와 봉건영주와함께 하나의 반동적 계급에 불과한 지 반문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

^{126) &}lt;고타강령의 비판>에 대한 부분은 K. 마르크스·F. 엥겔스, 김재기 역,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서울 : 거름, 1997) pp. 225-260 참조.

¹²⁷⁾ Mehring, op. cit., p. 449.

^{128) &}lt;고타강령 비판>, *ibid.*

¹²⁹⁾ ibid.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하층중간계급이 앞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되어 혁명적으로 변화한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부르주아와 함께 하나의 반동적 계급이라는 견해를 반박하였다. 이에 메링은 "하나의 반동적 계급"이란 생각은라살레가 독일노동계급의 12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프로이센 국가와 절대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와 연합전선을 형성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태도에서 얻은 결론이라는 것이다. (130) 리프크네히트는 후에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임금노동자에게만 한정해서는 사회민주주의는 승리할 수없으며 그 말은 계급투쟁적 의미를 지닌 당 성원들의 의식에 들어 맞았기 때문에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31)

고타강령의 라살레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리프크네히트는 "고타강령은 이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화해의 강령이다. 그것이 원칙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마르크스가 옳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당을 위해서 전략적인 우월이라는 목적에 일시적으로 굴복하는데 그친 것이었다. 이론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만 마르크스보다는 실천이 내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32)

당시 고타에서 합동한 양정당에게 있어서는 정당의 이론적 순수성 및 세련성보다는 당시의 긴박한 정치투쟁에 대처해갈 노동자계급의 단결이 더 중요하였던 것이다. 메링은 독일 노동운동에서 마르크스가 끼쳤던 영향이 실천적 현실과는 유리된 이념을 제공하였다면 사회변혁의 담당자로서 강력한 노동자정당이 발전해 나갈수 있는 길을 제시한 사람은 라살레였다는 것이다.133)

이처럼 고타강령에는 마르크스주의보다는 라살레주의의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¹³⁰⁾ Mehring, op. cit., p. 450.

¹³¹⁾ R. Morgan, op. cit., p.327.

¹³²⁾ S. Miller, Das Problem der Freiheit im Sozialismus: Freiheit, Staat u. Pevolution in der Programmatik der Sozialdemokratie von Lassalle bis zum Revisionismusstreit (Köln u. Frankfurt: J. H. W. Dietz, 1977), p. 77. 133) Mehring, ibid., p. 453.

그래서 라살레주의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그의 이론 중 가장 독자적인 것은 국가관¹³⁴⁾이다. 그의 독자적인 국가관에 토대를 두고 라살레는 '임금철칙의 철폐'와 프로이센의 '삼급 선거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먼저 그의 국가관을 살펴보면, 라살레는 그의 사회주의 이론에 관계되는 대부분을 마르크스 · 엥겔스의 이론에서 차용하였다. 영향력이 큰 그의 성명서 중의 하나인 1862년 『노동자강령』은 『공산당선언』을 명백한 인정도 없이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마르크스에게 그를 비난할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135)

라살레는 마르크스·엥겔스와 같이 역사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역할을 해석하였다.

제 4계급은 사회 가장 밑바닥의 토대를 떠받치고 있는 계급이다. 이제는 문벌과 토지소유, 법률과 사실을 불문하고, 하나의 새로운 특권을 형성함으 로써 사회의 모든 제도를 일관할 수 있는 아무런 배타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또한 내세울 수 없는 계급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스스로 인간사회에 유용한 존재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노동자인 것이 다.

따라서 그 가슴속에 전혀 새로운 특권의 씨앗이라고는 한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제 4계급은 그런 이유에서 전인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들의 안위는 전인류의 안위이며, 그의 자유는 전인류의 자유요, 그의 지배는 만인의 지배이다.[136]

¹³⁴⁾ Carr는 라살레의 국가관을 그의 가장 독자적인 점이라고 평가하였다. E. H. Carr, *Studies in Revolution* (New York, 1964); S. Miller, *ibid.*, 참조.

¹³⁵⁾ 마르크스 자신은 이것을 혹평하여, 『공산당선언』의 '저열한 통솔화(sehlechte Vulgarisatien)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메링(F. Mehring)은 이것을 "독일 상태를 거울에 비친 공산당선언"이라고 말하였다.

^{136) 『}노동자강령』, Edward Bernstein, Gesammelte Reden und Schriften, Bd.Ⅱ-Ⅲ,

또한 『노동자강령』은 『공산당선언』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계급투쟁 또는 계급지배의 역사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 시대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전복시키고, 전혀 계급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계급차별 그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공산당선언』에서 밝혀듯이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일차적 관심은 계급문제였으며, 민족문제는 역사상황의 추이에 따라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을 뿐이었다. 마르크스는 헤겔이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전도시켰다면서, 헤겔의 법철학을 비판하였다. 헤겔은 국가가 논리적으로 세속적인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에 선행하며,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볼 때, 정치적 국가는 가족이라는 자연적 기초와 시민사회라는 인공적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 국가는 오히려 시민사회로부터 파생된 존재에 불과하였으며, '국가형식주의(Staatsformalismus)'를 추구하였던 헤겔의 사유에서는 양자의 위치가 전도된 셈이었다.137)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데 이용되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묘사하였다. 그는 후일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부르주아 국가의 관료적 지배체제를 전적으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인민의 직접적 참여제로 바꾸려 하였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의 힘은 붕괴되고사회주의가 확고히 확립되기만 하면 부르주아 국가는 사라진다고 마르크스는 말하였다.138)

V (Berlin: Verlegt bei Paul Cassirer, 1919), Bd. II, pp. 186-187.

¹³⁷⁾ 임지현, 『마르크스·엥겔스와 민족문제』 (서울 : 탐구당, 1990) p. 28.

¹³⁸⁾ Lindemann, op. cit., p. 150.

반면 라살레는 계급차별이 철폐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국가가 실현 된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를 인간 공동사회의 유리적인 이념으로서 긍정하였다.

국가의 목적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신장시키고, 진보적으로 발전케 하는 일,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사명을 즉 인류를 향상케 하는 문화를 현실적 존재로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자유를 향한 인류의 교화 및 발전이다. 이것이 국가의 참된 도덕적 본성이며, 보다 높은 국가의 임무이다. 139)

국가의 과제와 결단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 발전을 쉽게 하고 또 이것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소명이다. 이것을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여기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140)

그의 국가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그는 당시까지의 국가가 특권계급을 대변하는 신분국가와 더불어 존재하였고, 이러한 국가에서는 민중 속의 극소수만이전체 위에 군림하며, 대다수 대중들은 정치적인 지배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라살레는 『노동자강령』에서 바로 이 특권계급과 신분국가가 중세로부터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유지되었으나, 역사적 국면은 새로운원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141)

라살레는 『노동자강령』에서 역사적 과정이란 귀족의 특권국가, 대지주의 신분 국가를 극복한 기반 위에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제 3신분이 새로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한다고 보았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중세적인 신분구조가 와해된 뒤에, 부각된 제 3신분은 부르주아적 소유 혹은 자본소유를 토대로 사회적 기능과 제도의 원리를 구축하였다. 부르주아가 국가 의지나 국가의 목적결정에 참여할 수

^{139) 『}노동자강령』, Grebing, *op. cit.*, p. 52.

^{140) 『}공개서한』, *ibid.*

¹⁴¹⁾ 임미성, op. cit., p. 7.

있는 정치적인 권리 중에서 중요한 권리가 투표권이라고 라살레는 단정하였다. 그래서 라살레는 1848년 혁명에 대한 봉건적 절대주의적 반동에 의해 도입된 삼급선거제를 근대 부르주아 국가의 선거체제라고 보고 이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142) 라살레의 가장 큰 투쟁목표는 삼급 선거제의 철폐였으며 그가 주도하는 노동운동의주요한 기치가 되었다.

라살레는 『노동자강령』에서 부르주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이념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부르주아들은 국가의 목적을 오로지 개인의 인격적 자유와 그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야경관(Nachtwächteridee)이다. 야경관이란 강탈을 방지하는 것만을 직분으로 살고 있는 야경꾼으로 국가 자체를 보는 견해이다. …… 만일 부르주아의 야경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강도나 절도가 없는 곳에서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전혀 쓸모 없는 것임을 승인하는 것이다.143)

여기서 라살레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국가이념이 전체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너무 나 나약하고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그들이 과세의 원리에 의하여 무산자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간접세제도¹⁴⁴⁾를 발전시켜 무산계급

¹⁴²⁾ E. Bernstein, Ferdinand Lassalle as a Social Reformer (New York, 1970) p. 48. 당시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의식수준이 낮았을 뿐 아니라 거의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선거가 하나의 커다란 조작극이었고, 이 극을 이끌어간 주역이 부르주아였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에 대해서는 Carlo Schmidt, "Ferdinand Lassalle und die Politisierung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No. 3 (1963), 참조.

^{143) 『}노동자강령』, E. Bernstein, *Gesammelte Reden und Schriften*, Bd.II, p. 195.

¹⁴⁴⁾ 라살레에 의하면 간접세란 부르주아들이 대자본을 위하여 면세의 특권을 실현하는 제도이며, 사회의 가난한 계급에게 국가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시킨

을 착취한다고 비판하였다.

라살레는 『노동자강령』에서 노동자계급의 이념으로서의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의 하층계급은 이미 그 성원 개개인으로서는 힘이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을 돕고 전원의 결합에 의해서, 개인이 개인으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며 또한 사명이어야 한다.

즉 노동자계급의 이념에서의 국가는 사물의 본성이나 사정의 강제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아니 빈번히 본의 아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명석 과 완전한 의식으로서 이 국가의 도덕적 본성을 자기의 임무로 삼게 될 것 이다. 이러한 국가는 이전부터 강요된 것을 기꺼이 가장 철저하게 수행한 다.145)

그리고 라살레는 노동자계급에 대해 "인류의 초상화는 그 자체가 프롤레타리아 속에서 형성되며 구체화된다.……146)"라고 밝히면서 노동자계급에게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계급에게 자신들의 계급의 원리를 전체적인 시대의원리로 고양시킬 세계사적인 의무를 완수할 전사로서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국가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을 해체시

것이라고 하였다. 간접세에 대해 『노동자강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라 살레는 차후 이 문제를 더욱 발전시켜, <간접세와 노동자계급의 상황(Die Indirekte Streur und die Lage der Arbeitende Klassen)>이라는 팜플렛을 썼다.

^{145) 『}노동자강령』, E. Bernstein, *Gesammelte Reden und Schriften*, Bd. II, pp. 198-199.

¹⁴⁶⁾ Shlomo Na'aman, "Lassalle-Demokratie und Sozialdemokratie",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No. 3 (1963), p.42.

키고, 보통선거권의 도입과 동시에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생산자 협동조합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147)

라살레는 프로이센의 현존국가를 자유롭지 않으며, 법적 체계에 있어서도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라살레이 프로이센 국가체계에 대하여 표명하였던 견해는 그의 <헌법 본질에 대하여>란 연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라살레는 국가의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의 형태는 국법적인 규범과 정치 권력적 현실 사이의 연계의 사회학적인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정치의 형태는 국가의 형태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필연적이고 독특한 표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148)

그리고 성문헌법은 그것이 실제적인 권력관계를 표현할 때 생명력을 가진다. 이에 라살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헌법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한 나라의 실제헌법은 국가를 성립시켜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존재한다.149)

¹⁴⁷⁾ 임미성, *op. cit.*, pp. 14-15.

¹⁴⁸⁾ E. Bernstein, op. cit., p. 89.

¹⁴⁹⁾ 이러한 라살레의 견해는 비스마르크와 라살레의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몸젠 (Wilhelm Mommsen)은 "헌법의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견해는 비스마르크의 견해에 일치하며, 프로이센의 보수적 서클과도 상응한다. 라살레는 비스마르크와 마찬가지로 국가인(ein Mann der Staats)이자 권력인(ein Mann des Macht)이었다"라고 하였다. W. Mommsen, "Bismark und Lassalle,"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No. 3 (1963), p. 8.

라살레는 1860년 당시 프로이센의 헌법은 지주, 귀족, 금융업자, 산업가, 소시민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1500 그는 이러한 권력관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요구하면서, 성문헌법의 결정이란 구체적인 현실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고보았다.

이러한 헌법제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라살레의 파악은 사회민주주의적 의식 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헌법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다(Verfassungsfrage ist Machtfrage)"라는 라살레의 공식은 사회주의 이론에 있어서나, 노동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⁵¹⁾

자유주의 국가이념을 비판하면서, 노동자계급의 국가이념을 내세우는 라살레의 국가관은 헤겔의 관념론적 국가철학의 맥과 연결되어있다. 즉 그는 헤겔적 비젼에서 국가를 사회의 대립을 해결하고, 어떤 점에서는 인간사에 있어서 초월적 목적을 수행하는 존재로 행동해야 할 윤리적 사명을 가진,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사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초계급적 기관으로 보았다. 1520 그리고 국가의 지원 하에 '노동자 계급의 도덕적 이상'인 사회주의가 도입되기를 바랬다는 점에서 초기의 사회주의자들과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다. 1530

마르크스의 국제적인 면에 비해, 라살레는 어디까지나 국가적 민족적 영역 속에 머문 채 자유주의의 '야경국가'를 비난하고, 피히테의 '국가관'¹⁵⁴⁾를 추구하였다. 이

¹⁵⁰⁾ 당시 독일은 경제적인 힘이 정치적인 힘을 낳은 상황이었다. (보르지히공의 규범이 프로이센 헌법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또한 전통적인 세력이 국가에게 하나의 특수한 세력수단으로 작용하였다. (…프로이센 왕의 규범이 프로이센 헌법의 일부분이 되었다.) C. Schmidt, "Ferdinand Lassalle und die Politisierung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3 (1963), p. 9.

¹⁵¹⁾ 임미성, *op. cit.*, pp. 17-18.

¹⁵²⁾ Lindemann, op. cit., p. 151.

¹⁵³⁾ *ibid.*, pp. 150-151.

¹⁵⁴⁾ 피히테는 국가를 하나의 현실적인 통일체로 파악하였는데, 국가는 국가를 이룬 개 인에게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자아실현과 성취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으

와 같이 라살레는 자유주의자들의 소극적인 국가이념을 비판하고, 국가를 강력한 윤리적인 실체로 파악하여 이러한 국가의 윤리적인 성격을 실현시킬 새로운 계급 으로서 노동자계급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켰다. 그는 기존의 국가질서를 토대로 하여 점진적으로 제 4계급의 국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임금철칙에 대한 라살레의 입장을 보면, 라살레의 사회주의 이론 특히 임금철칙은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긍정한 로드베르투스(Karl Rodbertus)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로드베르투스는 국민생산성 증가에 따라 임금도 비례해서 상승하도록 정부에서 임금을 조절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맬더스(Thomas R. Malthus)나 리카도(David Ricardo)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임금도 자연적으로 상승한다고 본 데 비해, 로드베르투스는 임금노동자들을 자유방임 상태로 둘 경우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국민생산성 증가의이익이 모두 자산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산소유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결국 소비부족과 생산지연 등의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보았다. 이러한 토대 하에 로드베르투스는 그의 임금이론을 체계화하여 '임금법칙'을 만들었다.155)

라살레는 '임금법칙'을 '임금철칙'으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지배하는 상황하에서 임금을 결정짓는 경제법칙인 '임금철칙'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한 국민이 생존을 이어가고, 자손을 퍼뜨리는데 필 요한 최저생활수준으로 항상 저하되며…(중략)… 이러한 평균치를 넘을 수 가 없다. 왜냐하면 좀 더 나은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결혼

로 개인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목적으로써 개인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G. D. H. Cole, *A History of Socialist*, 이방석 역, 『사회주의 사상사』I (서울 : 신서원, 1992), p. 235 재인용.

¹⁵⁵⁾ 임미성, *op. cit.*, p. 21. 이외 로드베르투스에 관해서는 Günther Rudolph, *Karl Rodbertus und die Grundrententheorie* (Berlin: Akademie-Verlag, 1984) 참조.

율을 증가시키고, 노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력 공급의 증가로 임금을 압박하게 되어, 임금은 다시 그 이전의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렇게되어 계속 최저생계비로 지탱해 나갈 수 없게 되면, 다시 이민, 독신이 생겨결국 비참한 생활은 노동자 수를 감소시켜 공급이 줄게 되고, 그러면 임금은 다시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156)

즉 노동자의 임금은 항상 시계추와 같은 진자운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하에서도 그의 노동의 완전한 산물, 즉 그들이 생산한 상품의 완전한 몫을 지불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157] 그리하여 라살레의 모든 정치적인 슬로건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임금철칙의 철폐'였으며, 이것은 그 후 라살레파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치강령 중 으뜸가는 주장[158]이며, 동시에 마르크스에 의해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받은 부분이다.

라살레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물질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현대사회에서 그들의 상태가 그 이전의 모든 생산단계에서 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들이 생산한 새로운 가치의 일부만을 지불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적인 지불마저 그들의 생존의 불확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존이 불확실한 이유는 라살레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은 잇따른 세계경제의 수축, 계속적인 산업혁명, 분업조건의 변화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것과 함께 고용계급과 산업주기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한 산업영역에서 더 낮은 영역으로 전

¹⁵⁶⁾ F. Jenaczek(hrsg), *Gesammelte Reden und Schriften*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0), S. 174, 오영옥, *op. cit.*, pp. 47-48 재인용.

¹⁵⁷⁾ 임미성, *op. cit.*, p. 21.

¹⁵⁸⁾ 전술한 바와 같이 아이제나흐파의 아이제나흐 강령과 고타강령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락될 혹은 실업군중으로 전락될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한다. 이것이 노동계급에게 압력을 가하며, 이 압력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중된다. 임금율 역시 오늘날 다양한 산업부문에 따라 변하는데, 문자 그대로 기아선상의 임금에서 상당한 정도의 안락을 보장해 주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산업체 내에서 착취의 양 역시 계속 변하는 바,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이전의 생산단계보다 높고 어떤 경우에는 낮기도 한다. 임금과 착취 양자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존하는 바 양자는 산업별 간에 다를 뿐 아니라, 동일 산업 내에서도 각기 커다란 변화가 있다. 그러나 단지 유일하게 지속적인 것은 자본의 착취율이 높아져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잉여노동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159)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존비 수준 이상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라살레의 주장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었다. 그 중에서 아낙젝크 (Janakzeck)가 내세운 견해를 보면, 그는 라살레가 괴테에게서 빌어온 것이 분명한 'eherne(철칙)'이란 단어에 주목하였다. 그는 '철칙'이 의미하는 것에 의하면, 라살레의 임금법칙이 자연법칙(자연법칙은 필연성과 함께 움직인다. 인간은 그것을 지양할 수가 없다)이 아닌 역사적 법칙(노동임금의 법칙이 작용하는 상황은 인간에 의해서 지양되어질 수 있으며 법칙 역시 변경되는 것이다)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아나젝크는 라살레의 철칙이란 바로 혁명의 요구를 뜻하는 바, 그것은 현존관계를 변경시키려는 강제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160)

라살레는 생존비 수준을 상회할 수 없는 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보조의 생산자 협동조합¹⁶¹⁾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비참한 법칙에

¹⁵⁹⁾ E. Bernstein, F. Lassalle as a Social Reformer, p. 142.

¹⁶⁰⁾ F. Janakzeck,(hrsg), op. cit., 서문 참조, 임미성, op. cit., p. 23에서 재인용.

^{161) &}quot;라살레는 그의 생산자조합을 루이 블랑(Louis Blanc)에게서 특히 루이 블랑의 조합사상에서 빌어왔다. 그의 전제는 루이 블랑과 푸르동(Pierre-Joseph Proudhon) 사이에 놓여 있으며 전자와 공동으로 그는 조합사상을 요구하고 후자와 공동으로 그는 국가의 도움을 요구한다." E. Bernstein, *F. Lassalle as a Social Reformer*, p.

대항해서 노동자계급은 스스로 기업가가 되어 '총노동수익권(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총노동수익에서 노동자 생존연장에 필요한 임금을 제한 전체 잉여분이 기업가의 이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노동수익권'은 노동의 보수 즉 노동수익이 임금을 대신하므로, 이를 위한 광범위한 수단으로서 라살레는 '생산조합'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162)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러한 생산조합을 창설할 만한 자본을 거의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살레는 국가로부터의 보조, 즉 융자를 주장하였다. 163)

노동자 스스로를 기업가로 만들자 — 그것이 바로 수단이며 이를 통해서만 임금철칙은 없어진다! 노동계급 스스로 기업가가 될 때 임금과 기업가의이윤간의 모든 차별은 없어지고 …… 그 자리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노동수익(Arbeitsertrag)만이 남는다! 기업가의 이윤의 금지는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자의적 협동을 통해 스스로가 기업가로조직됨으로 이 법칙은 지양된다. …… 이것만이 노동계급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정당하고 적합한 유일한 방법이다.164)

라살레는 협동조합을 당시 독일의 경제구조면에 비추어 둘로 나누었다. 산업조합과 농업조합이 그것이다. 이것은 생산자의 세 요소인 토지·자본·노동 모두가 노동자 자신의 것이 됨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산업조합은 모든 개인적인 중간기업을 폐지하고, 모든 무역지사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과잉생산과 산업위기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농업조합은 차등과세 혹은 토지세의 사회화를 통하여 조합들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가가 토지세를 관장하

^{140.}

¹⁶²⁾ 오영옥, op. cit., p. 48.

¹⁶³⁾ 정현백, op. cit., p. 186.

^{164) 『}공개서한』, 오영옥, *ibid.*, p. 49 재인용.

며, 농민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과 동시에 평등화된 노동의 산물을 제공하며, 거두 어드린 토지세는 국가의 교육, 과학, 문화 및 공공경비로 사용케 하였다.165)

조합간의 경쟁은 인정되며, 이들 개별조합들을 묶어 보증조합을 만들며, 조합가입은 자유의사에 맡겼다. 라살레는 『공개서한』에서 밝히기를 "조합가입은 노동자에게 그 내면적 자유와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침해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의 종속관계 속에서 구해져서도 안된다"라고 하였다.166)

라살레가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한 것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생활조건의 향상이며, 정치적 자유의 획득이었다. 그는 생산자 협동조합의 창설의 전제는 보통·직접 선거권의 관철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정부를 통제할수 있을 때에야만 국가보조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그를 자유주의 조합 사상가인 슐째-델리쯔쉬일파 및 보수적인 사회개혁가 양자로부터 분리시켰다. 노동자들의 자조적인 협동조합을 주장하였던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동등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부르주아 사상가들이었다.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개혁가는 국가보조의 형태를 가부장적인 감독의 형태로 보았다.167)

로드베르투스는 라살레적인 생산자 협동조합에 내재하고 있는 약점과 모순을 간파하고 비판하였다. 그는 라살레가 상정하는 조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철폐도, 생산수단과 재산의 사회화도 아닌 일종의 사적인 이익기금에서 발전한 집단자산이며, 더욱이 그것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층 발전된 자본주의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로드베르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점은 이와 반대로 독점가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로드베르투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막는 것이

¹⁶⁵⁾ E. Bernstein, F. Lassalle as a Social Reformer, pp. 142-143.

¹⁶⁶⁾ 임미성, *op. cit.*, p. 25.

¹⁶⁷⁾ ibid., p. 26.

쉽다고 보았는데, 그러나 정부보조의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서는 생산의 사회화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주의화된 기초 위에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 의 한 가운데에 이식된 협동조합은 여러 방면에서 자본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 았다. 라살레는 현존국가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슐쩨-델리쯔쉬의 협동조합과 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며, 보편적인 형태의 국가소유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로드베르투스 의 견해였다.168)

마르크스도 역시 이점을 간파하였는데, 그는 라살레 자신이 '오늘날의 국가'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것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마르크스에게 오늘날의 국가는 명백히 자본주의 국가인바, 그것은 결코 라살레이 상정한대로 지적・윤리적・자유주의적인 기초를 포함하고 있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라살레적인 협동조합이란 현존 생산조건의 철폐와 무관한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가 지향해야만할 미래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반동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69)

이 점은 사회주의자로서의 라살레의 명백한 약점이었음이 분명하며, 그리하여 그는 사회개량주의자의 성격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라살레는 국가가 후원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창설하여 노동자계급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비스마르크와의 회담¹⁷⁰⁾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존 질서 내에서 국가가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회정책국가¹⁷¹⁾의 설립을 위한 노력이었다.

라살레주의의 마지막으로 라살레가 '임금철칙의 철폐'와 더불어 중요한 정치적

¹⁶⁸⁾ 임미성, *op. cit.*, pp. 26-27. 이외 로드베르투스의 라살레적인 생산자 협동조합 비판에 대해서 E. Bernstein, *op. cit.*, pp. 140-143 참조.

¹⁶⁹⁾ 임미성, ibid., pp. 27-28.

¹⁷⁰⁾ 라살레와 비스마르크는 1863-1864년 겨울 동안 4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다.

¹⁷¹⁾ 사회정책국가(Sozial Staat)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로 하고 국가가 생산분배를 통제하는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와는 다른 것이다.

선동은 프로이센의 '삼급 선거제의 철폐'이다. 삼급 선거제¹⁷²⁾의 철폐와 보통·평등·직접선거권의 도입은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라살레는 노동자계급을 보편적인 계급으로 상정하여 보편적인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이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사회혁명을 통한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보통선거권의 도입에 의한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민주주의자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모든 권리는 민주주의에만 존재하며, 또 권력도 역시 민주주의에서만 존 재한다.¹⁷³⁾

민주주의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모든 법은 힘이 된다.¹⁷⁴⁾ 이 투쟁의 주도권과 행동권은 노동조합이 가져야 한다. 내가 외치는 것은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운동이지 계급운동은 아니다.¹⁷⁵⁾

그는 민주주의로 독립적인 조직의 필요성의 근거를 삼았다. 그의 이상은 무산 노동 자계급이 의회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그들의 정당한 이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라살레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부정하였다.

¹⁷²⁾ 라살레와 비스마르크의 회담으로 인해 1867년 북독일연맹의회 선거에서 비스마르 크는 일반·보통 선거권을 도입하였고, 1871년 제국의회선거도 일반·보통선거의 원리에 따라 행해졌다. 그러나 프로이센 하원 선거에는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삼급 선거제가 있어서 프로이센에서 귀족의 정치적 지배는 막대하였다.

^{173) 『}공개서한』, W. Eichler, *op. cit.*, p. 37 재인용.

¹⁷⁴⁾ 라살레는 <권력과 법>이라는 팜플렛에서 법이 단순히 권력의 반영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법으로서 말해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임미성, *op. cit.*, p. 30.

¹⁷⁵⁾ E. Bernstein, Gesammelte Reden u. Schriften Bd. III, p. 30.

라살레에게, 민주주의 개념과 국가관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헤겔의 '민족정신'이 라살레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프로이센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입헌적인 자유와 함께 분열된 국가의 통일이었다. 따라서 독일 노동운동은 광범위한 민족운동 속에 융해되어야 했다. 48년 혁명의 민족혁명적인 추진력이 50년대의 소위 반동 시기 동안 약화된 뒤, 50년대 말에 이르러서 독일에서는 새로운 민족적 흥분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노동운동이 전개될 시기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특징지워 준 것이 바로 이탈리아 전쟁이었다. 176) 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노동운동은 광범위한 민족운동 속에서 독일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투쟁하게 되었다.

라살레는 진정 자유로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 계급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외국의 지배하에도 놓이지 않는 민족을 자유로운 민족이라고 보았다. 한 계급이 특권계급이나 신분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 안에 일관된 개성과 확고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독자적인 실체가 결여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 개념의 원천과 뿌리'를 오로지 '자유롭고 독립된 민족의 원칙' 위에서만 보았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우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의 임무는 동시에 국가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으며, 독일의 민족통일을 위한 것이었다.177)

이와 같이 라살레에게 민주주의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민족성의 원리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라살레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후에 고타 강령에서 밝히고 있 듯이 현재의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의 해방을 희구하였고, 따라서 현존 프로이센 국 가의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으로 받아들였다.

라살레주의를 토대로 절충적인 혹은 타협적인 고타강령은 이후 당 내부의 대립

¹⁷⁶⁾ Conze & Groh, op. cit., p. 44.

¹⁷⁷⁾ Grebing, op. cit., p. 55.

을 낳게 되어 변화해 가는데, 변화의 계기는 '사회주의자 탄압법(Das Sozialisteng-esetz, 1878~1890)'이다. 다음 절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 동에 미친 영향과 에어푸르트 강령에 대해 살펴보겠다.

3. 고타강령 이후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선

1875년은 독일 노동운동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노동정당의 분열이 극복되어지고 더욱이 노동조합조직과도 결속됨으로서 대중의 노동정당으로서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고타의 통합 대회는 기대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운동을 강화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1871년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124,655표(의석수는 2석)를 얻었고 1874년 선거에서는 351,952표(의석수는 10석)를 얻었다. 그리고 고타 대회 2년 뒤인 1877년 선거에서는 493,288표(의석수는 13석)를 얻었다. 178)

<표> 제국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얻은 득표수와 의석수

선거년도	전체 유효표	사민당의 득표수	사민당의 득표율(%)	의석수
1871	3,888,095	124,655	3.2	2
1874	5,190,254	351,952	6.8	10
1877	5,401,021	493,288	9.1	13
1878	5,760,947	437,158	7.6	9
1881	5,097,760	311,961	6.1	13
1884	5,662,957	549,990	9.7	24
1887	7,540,938	763,128	10.1	11
1890	7,228,542	1,472,298	19.7	35
1893	7,673,973	1,786,738	23.2	44
1898	7,752,693	2,107,076	27.2	56
1903	9,495,587	3,010,771	31.7	81
1907	11,262,775	3,259,020	28.9	43
1912	12,260,731	4,250,399	34.7	110

^{*} 총의원수는 387명이었음(1873년-1918년)179)

¹⁷⁸⁾ Dieter Fricke, *Hand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189 6~1917*, V. 2 (Berlin, 1987), p. 720, 최영태,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론』 (광주: 전남대출판부, 2007), p. 31 재인용.

¹⁷⁹⁾ 출처 : Dieter Fricke, *Hand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1896~1917*, V. 2 (Berlin, 1987), p. 720, 최영태, *ibid.*, 재인용.

라살레파는 1871년부터 1875년까지 3개의 신문으로부터 약 20,000명의 구독자를 갖게 되었으며, 아이제나흐파는 11개의 신문에서 28,000명의 구독자를 갖게 되었고, 1877년에는 '독일 사회민주당(SPD)'는 60개의 신문에 약 250,000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게 되었다.¹⁸⁰⁾ 1877년 제국의회선거에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베를린이나함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 40%의 지지를 획득하였고 가장 산업화된 작센에 확실한 본거지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계속적인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는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¹⁸¹⁾ 객관적으로 당시 독일제국 내의 사회주의 세력이란 그들의 실지 정책을 고려해 볼 때 혁명을 일으킬 위험요소는 전혀 없었고, 주관적으로 보아도 비스마르크나 귀족·시민층 누구에게나 "윤리적으로 거칠고, 정치적으로 방자하며, 사회적으로 소원한 정당"인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적합한 시기에 현존국가와 사회질서를 전복시키리라는" 어떠한 위험성도 없었다. 단지 독일제국 내의 혁명에 대한 공포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프로이센 귀족들과 경제적으로 팽창한 시민층과 산업화의 전개로 밀려난 중산층이 노동계층을 핑계 삼으려는 부정적인 이해에서 생겨난 것이다.¹⁸²⁾

비스마르크는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지속적인 성공에 불안해졌다. 그는 1878년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1878년 5월 11일 황제에 대한 암살 기도가 발생하였을 때, 그는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에 대항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국의회가 이를 부결하였다. 7월 2일 황제에 대한 두 번째 암살기도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을 제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¹⁸⁰⁾ Eichler, op. cit., p. 50.

¹⁸¹⁾ 문기상, op. cit., pp. 92-93.

¹⁸²⁾ Grebing, op. cit., pp. 74-75.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노동자들의 지위의 개선이 오늘날의 사회 질서의 토대 위해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사회혁명을 통해서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논리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하는 대중의 복지를 위한 인도적인 노력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그러한 혁명의 실행을 현존하는 국가 제도의 동시적인 전복 아래 모든 문화 국가들의 노동하는 대중의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서 달성하려 할 것이다. 183)

사회주의자 탄압법¹⁸⁴⁾은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에 대한 매우 비인간적인 냉혹성을 의미하였다. 베를린, 함부르크, 라이프찌히, 프랑크푸르트, 스테틴등 5개의 도시에서만 892명이 1,477명의 가족과 함께 추방되었고, 154종의 정기간행물과 1,067권의 책 및 팜플렛들이 금지되었다. 1878년에서 1879년 사이에는 그 법의 근거하에그리고 폐하 모독죄(Majestätsbeleidigung)로 말미암아 도합 600년의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1888년까지는 831년으로 증가되었다.¹⁸⁵⁾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비스마르크가 목표로 한 만큼 세력이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 법이 발효되는 동안에도 스위스와 덴마크 등 국외에서 세 차례의 비밀 당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의 유지와 단합을 도모하였다. 또 스위스에서는 당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Der Sozialdemokrat)』를 발행하여 이를 비밀리에 국내에 반입시키는 방식으로 해외지도부와 국내 조직과의 연락을 도모하였다.186)

한편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독일사회주의 운동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그 범위가

¹⁸³⁾ W. Eichler, op. cit., p. 51.

¹⁸⁴⁾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정당 탄압', 그러나 '의회 활동 허용', '노동자의 정치 활동 권리 박탈',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적 지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모, *op. cit.*, p. 37.

¹⁸⁵⁾ W. Eichler, *ibid.*, p. 53

¹⁸⁶⁾ 최영태, op. cit., p. 23.

비록 이론 영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의 급진화를 조장한 것이었다. 즉 마르크스주의가 독일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노동자와 국가사이의 틈을 크게 벌려 놓은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노동자들 중에서는 노동자 해방 운동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라살레의 주장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노동자들에게 라살레의 그러한 주장이 틀렸음을 인식시켜주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보다 실감나게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점차로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형성되어갔고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계급에게 점차로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187)

또한 독일 사회주의 운동에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됨으로써 내부의 갈등도 보다심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본적으로 독일 노동자들은 마르크스를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독일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르크스 이론에서 말하는 시민사회의 필연적인 몰락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 탄압법하에서도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지도부는 국가권력을 위협하는 정당으로 혁명적이려 하지 않았고 노동자의 '직업정당(Berufspartei)'으로서 머물러 있을려고 하였다.188)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개혁주의적인 경향은 사회주의자 탄압법 아래에서 의회의 집중된 활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지도부는 제국의회 내에서 하나의 원내세력으로 들어갔고, 선거전에서의 승리라는 의회정치적 활동이 권력으로 가는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이 점차 당의 노선이 되었다. 189) 그리하여 베벨은 1890년 10월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기된 후에 개최되었던

¹⁸⁷⁾ 최영태, op. cit., p. 24.

¹⁸⁸⁾ Grebing, *op. cit.*, p.92.

¹⁸⁹⁾ *ibid*.

할레 전당대회에서 최근 20년간의 당세 발전경과를 보고하면서 의회제도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반 선거권 문제와 제국의회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의 동요는 사회주의자 탄압법 하에서 당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가장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선동책이었다.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자 탄압법 아래에서 제국의회의 장이 차단되고 주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면 당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0)

이와 같은 경향으로 의회정치적 활동이 권력으로 가는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이점차 당의 노선이 되었다. 즉 선거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제국의회 선거에 참여하여획득한 성과¹⁹¹⁾들로 인해 당원들은 사회주의 정당이 이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기울어진 것과 무관하게 의회주의적·개혁주의적 전략에 대해 보다 큰 신뢰를 갖게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90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의 폐기와 더불어 사회주의 정당이 합법적 활동을 보장받고 또 그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계속 득표율이 높아짐으로써 더욱 굳어졌다.¹⁹²⁾ 사회주의자 탄압법의 폐기와 선거의 승리는 사민당원들 중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당이 이제 합법적이고 개혁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그들의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¹⁹³⁾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1888년에 새로운 황제 빌헬름 2세가 즉위하고 1890년 비스마르크가 재상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동년 10월 1일로 그 연장안이 부결됨으로써 폐지되었다.

¹⁹⁰⁾ Gerhard A Ritter (Hrsg.), *Das Deutsche Kaiserreich : Ein historisches Lesebuch* (Göttingen, 1977), pp. 241-242, 문기상, *op. cit.*, p. 95에서 재인용.

¹⁹¹⁾ 본고 p. 62 표 참조.

¹⁹²⁾ 최영태, op. cit., p.30.

¹⁹³⁾ *ibid*.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지된 1890년 10월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할레에서 당 대회를 개최하여 '독일 사회민주당(SPD)'으로 당명을 개칭하였으며, 1891년에는 더욱 마르크스주의의 색채가 강한 에어푸르트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엥겔스의 협력과 승인 하에 긴 토론 없이 결의되었다. 강령의 작성자는 당의 지도적인이론가이며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자인 카우츠키(Karl Kautsky)와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이었다.¹⁹⁴⁾

그러나 사회주의자 탄압법 하에서의 마르크스주의195)가 독일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독일 사회민주주의 개혁주의적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에어푸르트 강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강령은 마르크스주의의 색채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론적 측면에, 그것도 강령의 전반부에 한정된 것이었다. 에어푸르트 강령 중에서도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급진노선과는 다른 방향 즉 지금까지 독일 사회주의 정당들이 추구해왔던 일상적 개혁의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만일 강령의 후반부에 준거하여 평가한다면 독일 사회민주당은 사실상 개혁주의 정당이나 마찬가지였다.196) 다시 말해서 카우츠키에 의해 만들어진 강령의 전반부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독단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자본론』 첫머리에 나오는 시민사회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자연적 필요성'으로 강조하였다. 반면에 베른슈타인에 의해 엮어진 강령의 후반부에는 노동자들의 정치사회적 상황개선을 위해 현존국가를 인정하려는 전제조건이 내포되었다. 이와 같이 강령의 이중성은 마르크스 이론의 입장에서의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합'에서 그 해결을 찾았다. 이는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에서 개혁과 혁명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점을 볼 때 강령 자체로는 아무런

¹⁹⁴⁾ Eichler, op. cit., p. 61.

¹⁹⁵⁾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은 각각 1879년과 1880년에 엥겔스의 『反뒤링론 Anti-Dühring』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고 한다. 196) 최영태, *op. cit.*, p. 27.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¹⁹⁷⁾ 그러나 에어푸르트 강령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과 실천간의 괴리현상 - 혁명적 이념과 개혁주의적 실천 - 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에어푸르크 강령의 원칙부분의 첫 단락은 다음과 같다.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적 발달은 자연적 필연성에 의해, 그 기반이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사적 소유권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소규모 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것은 노동자를 그의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그리고 노동자를 재산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동안에 생산 수단은 상대적으로 소수 자본가들과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독점물이 된다.198)

따라서 강령은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만이 대기업과 대지주의 이익을 착취당하는 계급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지 않고는 생산 수단을 공동체의 소유로 변형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

반면 에어푸르트 강령의 실행부분은 실제로 고타강령을 확충하고 심화시켰다. 다시 말해 개혁적이고 라살레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에어푸르트 강령의 실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200)

정치, 경제적 분야와 관련된 사항 : ① 보통, 평등, 직접선거 ② 인민에 의한 직접입법과 지방자치의 실현 ③ 평등한 병역의 의무, 상비군의 시민군으

¹⁹⁷⁾ Grebing, op. cit., p.108.

¹⁹⁸⁾ Eichler, op. cit., p. 159.

¹⁹⁹⁾ *ibid.*, pp. 160–161.

²⁰⁰⁾ ibid., pp. 162-164; 최영태, op. cit., p. 28.

로 대체 ④ 언론, 결사의 자유 ⑤ 여성의 평등권 ⑥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 대한 공동부조 금지 ⑦ 교육의 세속화, 의무교육 ⑧ 무료 법률구조와 인민에 의한 재판관 선출 ⑨ 무료의료 시혜 ⑩ 누진소득세 및 재산세의 도입과모든 간접세, 과세의 폐기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① 8시간 노동제와 14세 이하의 소년, 야간 노동 금지, 물품 임금제 폐지 ② 노동감독관에 의한 모든 기업의 감독 ③ 농업노동자와 공장노동자의 법적 동등화 ④ 결사권의 보장 ⑤ 모든 노동자 보험의 국가인수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에어푸르트 강령은 원칙부분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서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실천부분에서는 기존의 라살 레주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보통선거, 인민에 의한 직접입법은 라살레가 주장하는 핵심내용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에어푸르트 강령을 '이론과 실천의 통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에 토대를 둔 혁명적 정당을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주의적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민주당의 전술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베벨에 의해 주도되었다.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단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베벨은 무엇보다도 당내의 두 경향 즉 급진파와 개혁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술을 구성하였다. 혁명적 '대기주의 (Attentisme)'라고 지칭되기도 했던, 이론과 실천의 통합정책은 바로 이러한 목표에잘 부합되었던 것이다. 강령상의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은 급진파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개혁주의 노선은 온건파를 안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벨의 전술은 1880년대에서 1890년 초 사이에 엥겔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1880년대 동안엥겔스는 베벨을 이론과 실천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시킨 지도자로 간주하였다.

에어푸르트 강령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 - '이론과 실천의 괴리'와 '이론과 실천의 의통합' -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두 견해 모두 에어푸르트 강령속에서 라살레주의적 개혁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던 18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독일 사회민주당은 1860년대 이후 독일 사회민주주의에 계속 영향을 미친 라살레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혁주의적, 의회주의적 노선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²⁰¹⁾ 최영태, *op. cit.*, p. 40. 아벤도르트는 이 강령의 두 부분이 내적으로 전혀 모순적 이지 않고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박호성, *op. cit.*, p. 147, 주 54.

IV. 맺음 말

독일에서 1848년 혁명기의 노동운동은 보른을 중심으로 조직된 '형제단'에 의해시작되었다. 보른은 마르크스 · 엥켈스와는 다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철저한 사회개혁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조직하여 힘을 가진다면, 정부가 자신들의 조직에 주의를 돌릴 것이라 믿었다. 보른과 형제단이 바라던 새로운 사회는노동자가 지배하는 그리하여 모든 계급지배가 종식되는 사회였으며, 이 사회는 단계적으로 실현되리라고 믿었다. 그는 노동자들의 생산협동조합을 이러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기의 생산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는 국가가 이 조합을 후원해줌으로서,노동자들은 자본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그들에게 노동을 보장하고,그것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였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국가 소멸론을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혁명과는 다른,사회개혁이 노동운동의 방향을 이루었다. 이 조직의 전통은 이후 1860년대 출현한 노동운동에 이어진다. 생산조합을 위한 국가의 도움을 요구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정책에서 형제단의 연속성은 1860년대의 ADAV에 반면에 민족정책—대독일과 연방적 공화국 지지—에서의 연속성은 VDAV으로 계승되었다.1)

1850년대 말 이래로 이러한 자유주의와는 독립되어 정치적 문제를 다루려는 노동자 조직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주동이 되어 ADAV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라살레에게 새로 결성될 조직의 강령을 요청하였으며, 라살레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공개서한』을 작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1863년 5월에 ADAV가 창설되었으며, 라살레는 초대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19세기 중엽의 독일 노동 운동은 라살레의 정당의 확립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을 세단계로 나누어 보면²⁾, ① 노동자 연합 결성의 단계(1863~1869) ② 노동자 조

¹⁾ 한운석, "독일 노동자 형제단," pp. 267-268.

직의 정비 단계(1869~1875) ③ 본격적인 정치 운동 단계(1875~1878)로 설명될 수 있다.

① 단계는 라살레가 직접 주도한 노동 운동의 단계이다. 라살레가 주도한 ADAV은 우선 자유주의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정당으로 발전하여 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 이 단계의 가장 큰 의의는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 수립되었다는데 있다. 또한 라살레주의는 독일 노동운동의 중요한 사상으로써, 이후 노동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단계는 베벨이 주도한 노동 운동의 단계이다. 아이제나흐파의 전신인 VDAV는 ADAV와 달리 자유주의 세력와의 연합을 주장하고 노동자의 비정치화를 주장하였으나, 1865년 3차 VDAV대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급진화를 보여주었다. 그래서이 대회는 '좌파로의 결정적인 전환'의 대회로 일컬어진다. 베벨과 리프크네히트는 VDAV를 기반으로 1869년에 아이제나흐파를 창설하였다. 아이제나흐파의 아이제나흐 강령은 근본적인 면에서 라살레의 ADAV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시민민주주의적 목표와 라살레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절충적인 강령이었다. 양정당간의 차이점은 독일의 민족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였는데, 1871년 독일이 통일되면서그들이 다투는 대상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양정당은 1875년 고타대회를 통해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통합되었다. 이 단계의 의의는 노동자 조직 내의 통합과민주화를 실현시켰다는 데 있다.

③단계는 통합된 노동자 정당의 본격적인 정치 활동 단계이다. 고타 강령에 나타나고 있든, 이 통합 정당의 성격도 라살레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통합 정당은 고타 강령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회 참가, 생산연합을 위한 기본 조직으로서의 노동 조합 운동에 힘을 쏟았다. 독일 노동운동의 성장과 제국의회 내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성장에 불안감을 느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²⁾ 독일 노동운동의 세 단계에 대한 서술은 천진석, op. cit., pp. 199-200. 참조

자 탄압법을 실시하였으나, 사회민주당의 활동을 저지하려던 비스마르크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특히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지되기 직전에 행해진 1890년도 선거를 통해서도 알 수 가 있다.3)

이 세단계를 종합해 보면, 19세기 중엽 독일의 노동운동은 궁극적으로 라살레가 주도한 ADAV에 나타난 현실 개혁적 방향을 구체화해 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 다. 그 중심은 의회 진출을 통한 민주주의적 현실 개혁 추진에 있었다.4)

양정당 간의 통합 대회인 고타 대회를 통해 채택된 고타 강령은 통합이라는 형식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와 라살레주의가 혼합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오히려 라살레주의에 더 강하게 기울어진 강령이었다. 강령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외면하다시피한⁵⁾ 반면에 라살레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라살레주의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라살레의 사고 방법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 국가관이다. 그의 국가관은 옳고 그름을 떠나 그의 사상의 특색을 이루는 것이다. 그의 국가관은 마르크스의 국가소멸과는 다르다. 마르크스는 계급차별이 철폐된 뒤에는 계급적 억압기관에 지나지 않는 국가는 필요치 않게 되어 소멸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라살레는 계급차별이 철폐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국가가 실현된다고 논하고 있다. 진정한 국가란 '국가의 도덕적 본성'을 근본 임무로 삼는 국가, '인간의 사명을, 즉 인간을 좋게 하는 문화를 현실 존재로 형성하는 것 ……, 인류의 자유의 교화 및 발전'을 목표로 삼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관을 토대로 라살레는 그의 사회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독일에서는 라살레의 국가이념이 실제상 본질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사회주의자 탄압법하에서 라살레의 국가이

³⁾ 본고 p. 62 표 참조.

⁴⁾ Mehring, op. cit., p. 455.

⁵⁾ D. Dow & K. Klotzbach, ed., *Programmatische Dokummen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onn-Bad Godesberg, 1973), pp. 171-174, 최영태, *op. cit.*, p. 21 재인용

념은 동요하였으나, 근절시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6)

라살레의 '임금철착론'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근거 없는 이론이 되었는데, 이는 라살레가 주로 '미숙련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저임금의 결혼한 노동자를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노동계급에는 여러 층의 임금계층이 있으며, 특히 미숙련공과 숙련공의 차이를 도외시 한 것은 큰 오류였다. 그러나 라살레는 19세기 중반 독일의 수공업적인 상황 속에서 임금철칙론을 통하여 명백한계급의식과 연대감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임금철칙론은 중산층의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개선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것이었다. 또한 국가보조에 의한 생산조합의 설립은 프랑스의 루이 블랑의 고안으로 설립된 '국민공장'7)에서 그 모델을 따온 것이었다. 라살레도 국민공장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생산조합도 하나의 과도기적 수단으로 그의 목표에 적용시킨 것이었다. 즉 임금철칙론은 이론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1860년대 독일 상황에서 독일 노동자를 일깨우기 위한 이론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살레는 국가보조에 입각한 '생산자 협동조합'을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후원을 통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동시에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

⁶⁾ Hermann Heller, *Die politischen Ideenkreise der Gegenwart*, 윤기황 역, 『독일정 치사상사』(서울: 교육과학사, 1993), p. 218.

⁷⁾ 국민공장은 1848년 2월 혁명 당시 흥분한 파리시민을 달래는 방도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설립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이 오랫동안 노동자들 자신이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아 소유하고 관리할 '사회공장'을 역설해 왔는데 이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공장'은 단순히 하나의 구제계획에 지나지 않았으며 반군대식으로 조직되어 파리 및 지방으로부터 10만병 이상의실직자를 구제시켰다. 6월에 온건파는 경제적으로 절망한 수많은 사람들을 파리에집중시킨 이 국민공장이 법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려 이를 해체시켰다. 이에 파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6월 26일 폭동을 일으켰으나 군대에 의해 가혹히진압되었다.

기 위해서 라살레는 먼저 노동자계급에게 그들의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의회민주주의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다. 하지만 당시 프로이센에는 1849년이래 삼급 선거제가 존속하고 있어서, 노동자계급은 정치참여나 활동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라살레는 노동자들을 우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성장시키기위해서 보통선거권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보통선거권을 주장한 그의 개혁주의는 결국 "투표용지에 의한 혁명(Revolution durch den Stimmzettel)"》이었다. 보통선거권에 대한 주장은 이후 아이제나흐 강령이나 고타 강령, 에어푸르트 강령에도 반복적으로 주장되었다.

실제로 제국의회 내에서 사민당의 득표율⁹⁾은 1875년 고타대회 이후 계속 증가한다.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실시되면서 일시적으로는 득표율이 저조하였지만 오히려사회주의자 탄압법하에 실행된 1887년과 1890년 선거에서의 사민당의 득표율은 많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기되기 전인 1890년 선거에서 의석수는엄청 증가한다. 이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보통 선거권의 실현 및 의회 개혁에 초점을 두고,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계급 투쟁보다는 독일 국가 체제 개혁이라는 개혁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엥겔스도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거친 뒤 프롤레타리아트가 보통선거권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경우 의회민주적 방식에 의해서도 사회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1895년에 마르크스의 저서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1848-1850 (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48-1850)』이라는 책의 신판을 간행하면서 그 책의 서문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의회주의적 방식 문제를 놓고 종전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는 서문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1870-1871년의 전쟁과 코뮌의 패배로부터 회복하는 데 상당한 세

⁸⁾ 오영옥, *op. cit.*, p. 59.

⁹⁾ 본고 p. 62 표 참조.

월이 필요했던데 반해 독일에서는 그와 반대로 1870년대 이래로 선거를 통해 사회 민주당이 급신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독일 노동자들이 1866년에 도입한 보통선거권을 이용한 덕분에 당은 모든세계 앞에서 이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놀랄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사회민주당이 획득한 표는 1871년 102,000표, 1874년에 352,000표, 1877년에 493,000표 등이었다. 그러자 정부당국자들은 이 발전에 자극되어 사회주의자탄압법의 형태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당은 잠정적으로 위축되었으며 1881년에 획득한 표는 312,000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극복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당은 사회주의자 탄압법의 압력 하에서 선전물이 없어도, 결사 및 집회의 권리가 없어도 더욱 더 급속한 신장을 기록하였다. 당은 선거에서 1884년에 550,000표, 1887년에 763,000표, 1890년에는 1,427,000표를 얻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제 기구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사회주의자탄압법은 소멸되었고 사회주의들의 득표수는 1,1787,000표로 증가하여 전체투표자의 1/4이상을 기록했다. 정부와 지배계급들은 그들의 모든 수단을 소모하였다.10)

선거의 승리를 이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한 엥겔스는 주로 거리투쟁에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투쟁방식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투쟁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옛 스타일의 반란 즉 1848년까지 도처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렀던 바리케이트를 갖춘 거리투쟁은 현저히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¹⁰⁾ F. Engels, "Einleitung zu Marx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MEW, V. 22, pp.517-518, 최영태, *op. cit.*, pp.73-74 재인용.

서 어떠한 환상도 갖지 않는다. 봉기가 거리투쟁에서 군대에 대해 실질적인 승리를, 즉 양 군대 사이에서와 같은 승리를 거두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경우에 해당된다.11)

이와 같이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일찍부터 보통 선거권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진적 개혁주의 노선의 방향은 라살레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베벨과 리프크네히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ADAV와 아이제나흐파는 1870년대의 독일 정치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당 내부 통합 문제가 야기되자, 1875년 고타 통합 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노동정당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또한 고타 강령에도 의회주의에 입각한 점진적 개혁주의 노선이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독일 사회민주주의 개혁주의 노선은 독일의 역사적 상황에 적응해 가려는 현실개혁적 의미가 크다. 이후 사회민주당은 1891년에 더욱 마르크스주의의 색채가 강한 에어푸르트 강령을 채택하였으나, 여전히 실천적인 면에서는 개혁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¹¹⁾ F. Engels, op. cit., pp.519-520, 최영태, op. cit., p. 74 재인용.

참 고 문 헌

<단행본>

K. 마르크스·F. 엥겔스 저. 김재기 역.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서울: 거름, 1997.
박호성.『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서울 : 책세상, 2005.
안병직 외.『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서울 : 까치, 1997.
이민호 외.『독일사』.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6.
서울 : 느티나무, 1995.
『독일사의 제국면』. 서울 : 느티나무, 1991.
이진모. 『개혁을 위한 연대-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서울 : 한울, 2001.
임지현.『마르크스・엥겔스와 민족문제』. 서울 : 탐구당, 1990.
최영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론』. 광주 : 전남대출판부, 2007.
Abendroth, Wolfang.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von
den Anfängen bis 1933, Bd. I. Heilbronn: Distel Verlag, 1985.
Bernstein, Edward.(Hrsg.). <i>Gesammelte Reden und Schriften</i> , Bd. Ⅱ - Ⅲ, V.
Berlin : Verlegt bei Paul Cassirer, 1919.
Ferdinand Lassalle: Eine Würdigung des Lehrers
und Kämpfers. Berlin: Verlegt bei Paul Cassirer, 1919.
Ferdinand Lassalle as a Social Reformer. London:
Swan Sonnenschein, 1893. New York, 1970.
Birker Karl. <i>Die deutschen Arbeiterbildungsvereine 1840~1870.</i> Berlin:

- Colloquinn Verlag, 1973.
- Carr, E. H. Studies in Revolution. New York, 1964.
- Carr, William. A History of Germany 1815~199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Cole, G. D. H. *A History of Socialist*, V. 5. 이방석 옮김. 『사회주의 사상사』I. 서울: 신서원, 1992.
- Cone, Werner., & Groh, Dieter. *Die Arbeiterbewegung in der nationalen Bewegung*.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66.
- Cowie, Leonard W., & Wolfson, Robert. *Years of Nationalism: European History, 1815–1890.* London, 1985.
- Dieter Dow (Hrsg.).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r Vererivstage deutscher Arbeitervereine 1863~1869. Berlin: Colloquinn Verlag, 1980.
- Fesser Gerd. Linksliberalismus und Arbeiterbewegung. Die Stellung der deutschen Fortschrittspartei zur Arbeiterbewegung 1861–1866. Berlin; Colloquinn Verlag, 1976.
- Eichler, Willi. *Hundert Jahre Sozialdemokratie.* 이태영 역. 『독일사회민주주의 100년』. 서울 : 중앙교육문화, 1989.
- Forsyth, M., Keens-Soper, M. & Hoffman, J.(ed). *The Political Classics:* Hemton to Mil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Fried, Albert. & Sanders, Ronald. *Socialist Thought: A Documentary History.*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Friederici, Hans J. Ferdinand Lassalle: Eine politische Biographie. Berlin: Dietz Verlag, 1985.
- Geary, Dick.(ed). *Labour and Socialist Movements in Europe before 1914.* New York: Berg Publishers, 1992.

- Grebing, Helga. Arbeiterbewegung, Sozialer Protest und kollektive Interessenvertretung bis 1914.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85.
- ______.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0.
- Hermann Heller. *Die politischen Ideenkreise der Gegenwart.* 윤기황 역. 『독일 정치사상사』.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Katznelson, Ira., & Zolberg, Aristide R.(ed). Working-Class Formation: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Klönne Arno. *Die deutsche Arbeiterbewegung: Geschichte- Ziele- Wirkungen.*Köln: Eugen Diederichs Verlag, 1980.
- Kocka, Jürgen. Lohnarbeit und Klassenbildung: Arbeiter und Arbeiterbewegung in Deutschland 1800~1875. Berlin-Bonn, 1983.
- Lassalle, Ferdinand. Aus seinen Reden und Schriften, mit einer Einleitung von Ernst Winkler. Wien: Europa Verlag, 1964.
- Lindemann, Albert S. *History of European Socialism.* 오주환·진원숙 옭김. 『서양 사회주의의 역 사』. 대구: 경북대학출판부, 1983.
- Mackenzie, Norman. *Socialism:* A Short History. 양호민 역. 『사회주의』. 서울 : 탐구신서, 1992.
- Maehl, William Harvey. August Bebel Shadow Emperor of the German Workers. Philadelphia, 1980.
- Mayer, Gustav.(Hrsg.). *Nachgelassene Briefe und Schriften*, Bd. Ⅱ-VI. Osnabrück: Biblio Verlag, 1967.
- Morgan, Roger. *The German Social Democrats and the First International 1864* ~18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 Mehring, Franz. Geschich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erlin : (n. pub), 1960.
- Miller, Susanne. Das Problem der Freiheit im Sozialismus: Freiheit, Staat u. Pevolution in der Programmatik der Sozialdemokratie von Lassalle bis zum Revisionismusstreit. Köln u. Frankfurt: J. H. W. Dietz, 1977.
- Na'aman, Shlomo. *Lassalle.* Hannover: Verlag für Literatur und Zeitgeschehen GmbH, 1970.
- _____. Von der Arbeiterbewegung zur Arbeiterpartei. Berlin; Colloquinn Verlag, 1976.
- Rudolph, Günther. *Karl Rodbertus u. die Grundrententheorie.* Berlin: Akademie-Verlag, 1984.
- Stephan, Cora. Genossen, wir dürfen uns nicht von der Geduldhinreißen lassen!

 : Zur Theoriebildung in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1862 1878.

 Frankfurt: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81.
- Wehler, Hans-Ulrich. (Hrsg.). *Radikalismus, Sozialismus und Deutschland.*Frankfurt: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69.
- ______. Arbeiterbewegung und Obrigkeitsstaat.

 Bonn-Bad Godesberg: Verlag Neue Gesellschaft GmbH, 1972.
- Wette, Wolfram. Kriegstheorien deutscher Sozialisten: Marx, Engels, Lassalle, Bernstein, Kautsky, Luxemburg.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1.

<논 문>

- 강철구. "비스마르크와 19세기 후반의 독일사회정책." 『청주사범대논문집』, 10 (1981), pp. 63-79.
- 김재선. "독일 사민당(1860-1910)의 정치이념적 성격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논문 집』, 5권-2호 (2001. 12), pp. 77-92.
- 문기상. "독일 사회민주당과 국가사회주의." 『역사교육』, 41 (1987. 6), pp. 75-108.
- 오영옥. "독일 초기 노동운동과 Ferdinand Lassalle." 문학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1978.
- 이은주. "19세기 노동조합 운동에 관한 일고찰." 문학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1989.
- 임미성. "F. Lassalle의 정치사상." 문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 1986.
- 정해본. "비스마르크의 현실정치와 시민계급의 자기 이해와의 관계." 『인문과학』, 4 (1995), pp. 171-197.
- 조용욱. "19세기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배영수 편. 『서양사강의』. 서울 : 한울, 1992, pp. 313-352.
- 천진석. "라쌀 노동 운동의 현실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학림』, 6 (1984, 2), pp. 173-202.
- 한운석. "1860년대 독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정당 형성 및 민족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사총』, 30 (1986), pp. 469-506.
- _______. "1848/49년 혁명기 독일 노동자형제단의 민족문제에 대한 태도." 『역사학 보』, 154 (1997), pp.241-154.
- Armstrong, Sinclair W. "The Social Democrats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1863~1871." *Journal of Modern History*, 12 (1940), pp. 485–509.

- Bessel, Richard. "Workers, Politics and Power in Modern German History: Some Recent Writing on the German Labour Movement and the German Working Class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The Historical Journal*, 33 (1990), pp. 211–226.
- Brockmann, Stephen. "The Politics of German History." *History and Theory*, 29 (1990), pp.179–189.
- Elaenberg, Christiane. "The Comparative View in Labour History: Old and New Interpretations of the English and German Labour Movements before 1914."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34 (1989), pp. 403–432.
- Engelsine, Rolf. "Zur Politischen Bildung der deutschen Unterschichten 1789~ 1863." *Historische Zeitschrift*, 206 (1968), pp. 307–369.
- Hamerow, Theodore S. "Guilt, Redemption, and Writing Germa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88 (1983), pp. 53-72.
- John, Michael. "Liberalism and Society in Germany, 1850~1880: the case of Hanover." *English Historical Review*, 102 (1987), pp. 579–598.
- Mommsen, Wilhelm. "Bismarck und Lassalle."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3 (1963) pp. 81–86.
- Na'aman, Sholomo. "Lassalles Beziehungen zu Bismarckihr Sinn und Zweck."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2 (1962), pp. 55-85.
- ______. "Lassalle Demokratie und Sozialdemokratie."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3 (1963), pp. 21-80.
- _____. "Von der Problematik der Sozialdemokratie als demokratischer Partei."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5 (1965), pp. 503–525.
- Neitzel, Sarah C. "The Evolution of August Bebel's Social-Political Credo 186 1~1871." East European Quarterly, V. 13, N. 1 (1971), pp. 75-90.

- Rasmussen, Kenneth A. "August Bebel and the Origins of German Social Democracy 1863~1890." *Historian*, 50 (1988), pp. 386-405.
- Roberts, James S. "Drink and Industrial Work Discipline in 19th. Century Germany." *Journal of Social History,* 15 (1981), pp. 25–38.
- Schmid, Carlo. "Ferdinand Lassalle und die Politisierung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3 (1963), pp. 5–20.